
한일관계사학회

제192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1년 4월 10일(토) 오후 2~6시
장소 : ZOOM 화상회의

차 례

▶ 사회 : 홍성화(건국대)

【제1주제】 조선총독부의 『朝鮮古蹟圖譜』 편찬과 그 의미

발표 : 김인아(동국대) 토론 : 류미나(국민대)

【제2주제】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의 위생행정과 지역유력자 네트워크
-1910년대 ‘진해위생조합’을 중심으로-

발표 : 류나래(한국해양대) 토론 : 김경남(경북대)

【제3주제】 식민지기 테니스의 문화접변 -경식정구에서 연식정구로-

발표 : 김동명(국민대) 토론 : 김수희(독도재단)

조선총독부의 『朝鮮古蹟圖譜』 편찬과 그 의미

김인애(동국대)

1. 머리말
2. 『朝鮮古蹟圖譜』의 편찬과 활용
3. 『朝鮮古蹟圖譜』 편찬 주체와 구성
4. 한국사 왜곡과 문화재 유출
5. 맺음말

1. 머리말

『朝鮮古蹟圖譜』(이하 고적도보)는 조선총독부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고적조사사업의 결과 조선의 유적·유물을 활용하여 식민사관의 근거 제시와 일본제국의 문화적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편찬·간행한 자료집이다. 고적도보를 두고 당시 일제는 “한반도에 남긴 일본인의 가장 사랑할 만한 기념비 중 하나”¹⁾라고 평가하며 일본제국의 조선강점을 미화하였다.

1910년 일제는 조선으로부터 강제로 국권을 피탈하고 곧바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를 본격화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 방침으로 동화정책을 채택하였는데,²⁾ 유구한 역사와 고유문화를 가진 조선과 조선인을 하루아침에 지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목적에 따라 식민통치에 활용될 수 있는 식민지 조사는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고적조사사업도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에 입각한 동화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고적조사사업은 곧 고적도보 편찬의 배경과 토대가 되었다. 고적도보는 고적조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1915년부터 1935년까지 총 15권에 걸쳐 발간되었다. 고적도보의 편찬은 조선총독부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정리하는 작업이었고 고적조사사업과 더불어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 도구로 적극 활용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고적도보를 국내·외, 특히 서양제국에 배포함으로써 일제의 조선통치를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꾸며 선전하고 동시에 일제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⁴⁾ 무엇보다도 고적도보

1)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朝鮮學論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 1963, 327쪽.

2) “병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적으로 조선민중의 복리를 증진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동화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內鮮一家의 결실을 이루는 것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박찬승 외 3명,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 -시정25년사 1-』, 민속원, 2018, 29쪽 ; “일제는 동화가 아니거늘은 조선을 영구히 지배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김동명, 「조선에서 전개된 일본제국주의의 특징과 모순은 무엇인가」,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근현대-』, 한일관계사학회, 경인문화사, 2006, 127쪽.

3) 김신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 『동국사학』 6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203쪽.

4) 차순철,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신라사학보』 17, 2009, 111쪽 ; 당시 서구열강들은

편집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이후 한반도의 유물을 자국 또는 해외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다. 따라서 고적도보의 편찬 배경 및 과정, 편집자의 유물 반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일제의 동화정책의 사상적 근간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한반도 고유의 문화재 유출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사관의 근거를 밝히고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고찰하는 데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고적도보에 관한 연구는 그간 고적조사사업 혹은 그 밖의 연구의 기초 자료로만 인용되었을 뿐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적도보가 총 2,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보다는 고적도보의 기반이 되는 사업인 고적조사사업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고적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고적조사사업 전반에 걸친 연구⁵⁾가 있다. 이들 연구는 발굴조사의 내용, 평가 등에 대한 고고학적·역사학적 관점에서 고적조사사업을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고적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적·유물에 대한 미술사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위한 관련 법규에 대한 연구, 즉 문화재 정책⁶⁾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로써 이를 활용한 박물관, 역사서 편찬, 관광 등에 대한 연구⁷⁾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적조사사업의 실상을 밝히고 이 사업이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고고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이었음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제 당시에 이루어졌던 발굴조사 내지는 고적조사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 활용면에 있어서는 박물관 전시를 통한 시각적 지배, 관광을 통한 공간적 지배에만 주목하였다.

식민지 고적의 발굴·측량·촬영·분석과 유물의 보존을 통해 근대적인 학술적 성과를 쌓아갔다. 이를 통해 수집된 고고학 유적들은 세속적 식민지 국가의 훈장으로 새롭게 지위를 얻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고고학 보고서가 다수 작성되면서 그 훈장은 무한 복제되어 국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었다. 세키노 타다시, 구로이타 가쓰미 등 고적도보 편집자들은 당시 서양 유학을 통해 식민지 고고학을 배우고 이를 조선에 적용하여 일제도 서양제국과 나란히 하는 국가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이성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총독부박물관」, 『美術資料』 87, 국립중앙박물관, 2015, 30~32쪽).

- 5)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이기성, 「朝鮮總督府의 古蹟調査委員會와 古蹟及遺物保存規則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의 제도적 장치(1)-」, 『영남고고학』 51, 영남고고학회, 2009 ; 오영찬, 「朝鮮古蹟研究會의 설립과 운영 -1931~1932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1 ; 이병호,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의 고적조사와 쌍릉 출토품」, 『백제문화』 5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7 ; 박지영, 「일제강점기 고구려 벽화고분 연구 -조선고적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박나래, 「조선총독부의 '임나' 지역 고적조사사업」, 경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류미나,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업에 대한 평가와 인식 -패전 후 일본 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2020 ; 이희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고건축 사진을 통해 본 일본제국주의의 이미지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0.
- 6) 오세탁, 「日帝의 文化財政策 -그 制度的 側面을 中心으로-」, 『文化財』 2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 박선애, 「조선 총독부의 문화재 정리사업 연구」, 동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지선, 「조선총독부 문화재정책의 변화와 특성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종수,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오춘영, 「韓國 近代 '文化財' 認識의 形成과 變容」,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7)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차순철, 「일제강점기 경주지역의 고적조사와 관광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13, 신라사학회, 2008 ; 박찬홍, 「『朝鮮史』(朝鮮史編修會 編)의 편찬 체제와 성격 -제1편 제1권(朝鮮史料)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99, 한국사학회, 2010 ;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 ; 정상우,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의 편찬과 사건 선별 기준에 대하여 -『朝鮮史』 제 4·5·6편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 최석영, 「일제 하 경주 고적조사·발굴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초적 연구」, 『역사와 역사교육』 33, 웅진사학회, 2017.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고적도보의 편찬 체제, 내용, 주체 등 세부적인 항목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책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 고적도보의 편찬 경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고적도보가 1915년부터 20년간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정리·편찬된 만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고적도보의 편찬 주체와 체제를 검토하고 제4장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시대별·소장처(자)별 분류를 통해 고적도보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적도보 편찬의 의미, 고적도보를 통한 문화재 유출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로 말미암아 고적도보의 의미, 사료적 가치를 고찰하고 나아가 조선총독부 동화정책의 실체와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고적조사를 통하여 어떠한 통치효과를 거두려고 했는가를 규명하고 문화재 유출의 실태까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朝鮮古蹟圖譜』의 편찬과 활용

고적도보는 1915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1935년까지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간행되었다. 총 15권, 2,300쪽, 6,633매의 달하는 유적과 유물의 사진이 시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유적은 1,607매, 유물은 3,349매이다.⁸⁾ 이들 사진은 1909년부터 시행된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고적도보의 바탕이 되는 고적조사사업은 한반도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여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 조선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왜곡하기 위함이었다. 즉 고적조사사업은 식민 통치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의 하나였고,⁹⁾ 이는 고적도보 발간의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고적조사사업과 고적도보 편찬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조선에서 고적 조사는 1909년(明治 42) 구한국정부에서 탁지부 건축소의 사업을 위해 세키노 타다시,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마 슌이치에게 반도 내의 고건축물 조사를 촉탁한 것을 단서로 한다. ... (중략) ... 이 조사는 1914년(大正 3)에 이르러 우선 조선의 모든 도에 걸쳐 일반적 조사를 끝냈다. ... (중략) ... 이로부터 반도에서 예로부터의 사적을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미술·공예·풍속 등 각 방면에 걸쳐 귀중한 참고 자료를 상당히 얻을 수 있었다. ... (중략) ... 실로 우리나라에서 고적·유물을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의 힘으로 보존의 책임을 맡게 된 효시이다. 또 그 성과는 1915년(大正 4) 3월 『조선고적도보』 제1책 및 제2책을 출판·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보 및 고적조사보고서를 간행하였다. ... (후략) ...¹⁰⁾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는 1909년에 시작된 세키노 조사단의 고건축물 조사로부터 시작하여 1914년까지 한반도의 개요 조사를 마친 후 한반도 古來의 사적을 판명함과 동시에 미술·공예·풍속 등 각 방면에 걸쳐 귀중한 참고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기왕의 고적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대요를 기록하고 출판·발표하여 실상을 널리 소개하고자 하였다.¹¹⁾ 이러한 의도 하에 1915년 3월 각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 중 낙랑·대방·고구려시

8) 유적과 유물의 분류는 「고적급유물보존규칙」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고적 및 유물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였다.

9) 이주현, 「탈식민지고고학의 한계와 문화유산의 재인식」, 『신라사학보』 47, 신라사학회, 2019, 4쪽.

10) 박찬승 외 3명,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상 -시정25년사 1-』, 민속원, 2018, 222~223쪽.

대의 유적·유물 가운데 고증할 만한 것을 수집하여 조선고적도보 제1책, 즉 고적도보의 출간이 시작되었다.¹²⁾

고적도보 제1책 가장 앞쪽 ‘緒言’에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경위를 짧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잘 살펴보면 고적도보의 편찬 목적을 엿볼 수 있다. 서언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조선고적조사의 사업은 1909년(明治 42) 9월 한국정부에 의한 고건축물의 조사를 공학박사 關野貞, 문학사 谷井濟一, 공학사 栗山俊一에 촉탁함에 비롯하여 1910년(明治 43) 한국병합과 함께 본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거듭 그 범위를 확장하여 역사의 證徵 및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은 전부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후 三氏(위의 세 명)는 매년 가을과 겨울 사이 약 3·4개월에 걸쳐 각지를 순회하고 탐험·핵사에 힘써 족적[이] 거의 13도에 골고루 미쳐, 이미 수집한 각종 사진 및 도면 등 무려 수천에 달한다. 역사의 隱微를 깨우쳐 예술의 진상을 드러내고 모든 학계에 이로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조선고적도보란 제목으로 순차적으로 이를 印行하여 천고의 유적을 현대에 소개한다.¹³⁾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적도보는 고적조사사업 결과물 중 학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 간행하여 천고의 유적을 현대에 소개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즉 고적조사 후 수집된 수천의 조선 유적 및 유물을 사진과 도면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한반도의 유적과 유물이 일제의 조선 통치 이후 정리되기 시작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적도보 편찬에 관한 고적조사위원회와 고적조사위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의 글을 살펴보자.

원래, 조선에서는 고분을 조상의 靈域으로 신성시하여 그 부장품에 손을 대는 것을 꺼리며, 타인이 이를 파손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겨 왔다. 이러한 이유로 本府의 학술조사에 있어서도 때로는 그 지역 사람들의 반감을 사는 일이 있다. ... (중략) ... 1925년(大正 14) 이후 낙랑 고분에서 도굴된 것들이 매우 많아, 이러한 도굴·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사 계획을 위해 애썼으나, 경비 관계상 그 어느 것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 (중략) ... 대체로 조선에서의 고적조사사업은 동양에 있어서의 선구적인 학술조사로, 일본에서는 미야자키현에서 이루어진 2, 3건의 발굴 조사를 제외하면 학술적인 조사라 부를만한 것이 매우 적은 데 비해, 조선에서의 고적도보, 고적조사보고는 서양학자가 선망할 정도이며 이 점에서 크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¹⁴⁾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보고 및 고적도보, 기타 출판은 ... (중략) ... 가장 중요시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게다가 최근 속출하는 새로운 자료의 증가는 막대한 수에 이르러, 조선 상대의 문화를 증정할 뿐만 아니라 支那漢代의 문화를 엿볼 수 있고, 일본불교예술의 연원을 더듬어 갈 만한 수많은 귀중한 것들이 있다. ... (후략) ...¹⁵⁾

요컨대 조선총독부는 대대적으로 행해진 한반도 고분의 도굴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적조사사업을 실행하였고 이는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넘어서서 동양에 있어서의 선구적인 학술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고적도보는 서양학자가 선망할 정도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고 드높이며 이를 통해 일제의 위용을 높이고 조선총독부 식민통치의 긍정적

1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3, 1917, 370쪽.

1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3, 1917, 370~371쪽.

13) 朝鮮總督府, ‘緒言’, 『朝鮮古蹟圖譜』 1, 1915.

14) 古蹟調査委員會, 「제25회 고적조사위원회 의안」, 의안 제1호, 1926년 8월 2일.

15) 藤田亮策, 앞의 논문, 1931, 1045쪽.

효과를 선전하고자 하였다. 후지타는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물으로써 고적도보 및 기타 출판물들은 고적조사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그 수가 점점 증가하여 막대함에 따라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고 일본 불교 예술의 근원까지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결국 고적조사사업과 고적도보 편찬의 학술적 목적만을 내세우고 이를 서양제국에 까지 선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간행된 고적도보는 먼저 일왕에게 헌상된 뒤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각 황제, 대통령, 황실박물관, 名士 및 在野大使, 공사 등에게 발송되었다.¹⁶⁾ 이는 고적도보라는 훈장을 알아줘야 하는 대상이 바로 서양열강들이었기 때문이다.¹⁷⁾ 고적도보를 통해 조선 통치의 문화적 방면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은 총독 정치의 자랑이었던 것이다.¹⁸⁾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라우치 총독은 제1책에서부터 5책까지 영문해설을 첨부하여 비서관실에 비치하고 있다가 서구 내방객들에게 직접 서명하여 기증하면서 그들의 통치상을 자랑하였다.¹⁹⁾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1919) 총독은 고적도보의 발간과 함께 제1~5책까지 영문해설을 첨부하여 늘 비치하고 있었으며 서구 내방객들이 그를 방문할 때마다 직접 기증하면서 서양에까지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고적도보가 조선인, 일본인 등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시킬 뿐만 아니라 서양사람, 서구 열강들에게도 식민 통치의 효과적인 측면을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편찬되었음을 알려준다.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자료 이외의도 유물자료를 통해서 그들 통치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적도보는 일제의 한반도 점령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중요한 자료로써 조선총독부의 문화시정정책을 선전·고양하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1914년까지 한반도 전역의 기초조사를 마친 조선총독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적도보 편찬을 계획하고 발행을 실시하였다. 고적도보의 발간은 내적으로는 일제의 조선 강점 당위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외적으로는 서양 각국에 조선총독부 식민 통치의 학술적·문화적 면모를 善政이라는 표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朝鮮古蹟圖譜』 편찬 주체와 구성

1) 『朝鮮古蹟圖譜』 편찬 주체

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고적도보를 발간하여 조선 문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며 그들의 정책에 맞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적도보의 편찬은 고적조사사업을 진행하였던 고적조사위원들이 대거 편집자로 참여했다.

고적도보 전권에 따른 고적도보 편집자들은 다음과 같다.

16) 「古蹟圖譜發送」, 『每日申報』, 1916년 6월 22일.

17) 이성시, 앞의 논문, 32쪽.

18) 박찬승 외 3명, 앞의 책, 223쪽.

19)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1, 朝鮮學會, 1951, 254쪽.

<표 1> 고적도보 편집자 명단

이름	참여 기관 및 단체
關野貞(主)	고적조사위원회, 조선총독부박물관협의회, 조선고적연구회
谷井濟一	고적조사위원회, 조선고적연구회
栗山俊一	고적조사위원회
小場恒吉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위원회, 고적조사과, 조선총독부박물관협의회, 조선고적연구회
澤俊一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과
小川敬吉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위원회, 고적조사과
野守健	조선총독부박물관, 고적조사과
『朝鮮古蹟圖譜』 및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참고.	

고적도보는 세키노 타다시를 중심으로 일본인 학자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마 순이치와 조선총독부 직원인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1878~1958), 사와 준이치(澤俊一, 생물연대 미상),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1882~1950), 노모리 켄(野守健, 1887~1970)이 제작을 맡았다. 이들 구성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와 준이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키노 타다시 조사단으로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사와 준이치는 조선총독부 직원으로 주로 촬영을 담당했다. 고적도보에 수록된 유적과 유물들의 편집 및 정리는 주로 세키노 타다시가 맡았으며 야쓰이 세이이치와 오가와 게이키치가 세키노를 보조하였다.

그렇다면 편집자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적도보를 편집하였을까. 이는 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 내지는 역사관을 살펴보면 고적도보의 성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적도보의 책임 편집자인 세키노 타다시는 1909년 고적조사를 마친 후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마 순이치와 함께한 강연회에서 「韓國藝術の變遷に就て」라는 논고를 발표하였다.²⁰⁾ 그는 한반도의 역사를 삼한시대, 삼국시대, 신라통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별 대표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면서 조선의 문화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아류로 혹은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²¹⁾ 세키노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 중 고구려에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고구려는 곧바로 북조의 문화를 수입하였고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그것을 얻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남북조와 교통하여 그 예술을 수입하였다.²²⁾

세키노는 가장 앞 시기인 삼한시대에 대해서는 발견 유물이 부족하고 종래 학자들의 연구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생략하고 그 다음 시기인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였다. 세키노에 따르면 고구려는 북조의 문화를,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 외에도 직접적으로 남북조의 문화를 수입하였다. 삼국 가운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없는 것이다. 이는 세키노가 매우 일찍부터 조선의 문화는 외부로부터 작용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미 강점 이전부터 이러한 인식 아래 고적조사를 진행한 인물이 한일병탄 이후 고적조사사업에 임하고 고적도보를 편집했다는 것은 조선의 유적과 유물이 어떠한 의도

20) 1909년 고적조사를 마친 후 그 해 11월 23일 서울 종로 광통관에서 세키노 타다시,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마 순이치가 일본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였다. 그 내용은 『韓紅葉』이라는 발표집으로 정리되었다. 세키노 타다시의 「韓國藝術の變遷に就て」, 야쓰이 세이이치의 「上世に於ける日韓の關係」, 구리야마 순이치의 「平壤及開城の古墳」이 실려 있다.

21) 국립문화재연구소, 「1909년 『조선고적조사』의 기억」, 2016, 6쪽.

22) 關野貞, 「韓國藝術の變遷に就て」, 『韓紅葉』, 度支部建築所, 1909, 29쪽.

로 조사되었고 해석되었는지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는 신라통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대한 세키노의 인식을 살펴보자.

신라통일시대는 선덕여왕에서 시작되어 문무왕에 이르러 당과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 이 시대에는 당시 예술상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는 당의 문화를 수입하여 대발전을 이루고 반도에서 전무후무한 융운을 보았다.²³⁾

고려시대의 예술은 부장품 외 유물이 비교적 부족하여 잔존하는 것으로부터 판단해보자면 唐의 여류를 계승하고 宋元 예술의 감화를 받아서 다소 고유의 특질을 발휘한 것과 같다. 그러나 도기 이외에는 전 시대의 것과 비교하면 의장과 기교가 모두 크게 쇠퇴했다.²⁴⁾

조선시대의 예술에 대해 개괄하면 전기에는 오히려 불만한 예술이 존재하지만 후기에는 모든 공예를 통해서 현저하게 쇠퇴하고 타락한 징후를 나타낸다. 시대가 흐르면서 기교는 더욱 쇠퇴하고 기묘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국세의 隆替에 따른 시대정신의 弛張 추이의 결과 본디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 시작에 있어서는 송원의 유풍을 본받고 명의 양식도 참고한 것 같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예술상 청나라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다.²⁵⁾

세키노는 삼국이 통일된 이후 조선 예술은 발달의 정점에 달하여 황금기를 이루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려시대에는 도기 이외에는 의장과 기교가 모두 크게 쇠퇴하였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예를 통틀어 현저하게 쇠퇴하고 타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조선 역사의 타율성이라는 측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에서 멀어져 갈수록 그 문화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즉 다른 어떤 민족이 중국의 위치를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있었던 것이다.²⁶⁾ 결국 세키노는 우리 문화의 발생을 중국에서 구함으로써 조선 문화의 타율적 성격을 강조하고 동시에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서만 발전을 이룩하는 조선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를 대신할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쓰이 세이이치는 1909년부터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하여 1916년부터 본격화된 고적조사사업 5개년 계획의 실제 입안자이다.²⁷⁾ 고적조사사업에 깊게 관여하였던 그는 조사에 참여하던 초창기부터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설과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로 인식했으며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역사관은 앞서 말한 강연회에서 발표한 그의 논고 「上世に於ける日韓の關係」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한의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唇齒輔車의 지위에 놓여 있다. 또한 사학의 견지에서도 두 나라는 그 관계의 친밀함이 멀리 유사 이전부터의 일에 속한다. 우리 일본 상세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을 실로 일한 관계의 史實이라 할 것이다. 우리 정사의 첫 번째인 일본서기를 보면 일한 관계의 기사가 많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상세에서 일한은 하나의 영역이었던 것이다.²⁸⁾

23) 關野貞, 앞의 논문, 36쪽.

24) 關野貞, 위의 논문, 56쪽.

25) 關野貞, 위의 논문, 71~72쪽.

26) 국성하, 앞의 논문, 5쪽.

27) 정인성, 「일제강점기 羅州 潘南面 古墳群의 발굴과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백산학보』 103, 백산학회, 2015, 25쪽 ; 그간 세키노에 가려져 있던 야쓰이는 정인성에 의해 세키노와 함께 고적조사사업의 핵심 인물로 재조명되었다.

야쓰이에 의하면 한일 양국의 관계는 지리·역사상 유사 이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上世에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의 영역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식민 지배 정당화 작업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신라가 당의 세력을 빌려서 반도를 통일하고 반도가 우리 손을 떠난 지 1,200여 년이 지나고 메이지 성세에서 일한의 관계도 복고되어 다시 하나의 영역 상태가 되었다.”²⁹⁾고 말하며 한일병탄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신라의 왕 석탈해는 일본 사람이고 신라 왕자 아마테라스히보코(天日槍)는 일본에 귀화하였으며, 특히 이즈모(出雲) 지방 및 치쿠시(筑紫)의 북부와 신라는 나라가 열린 처음부터 하나의 영역이었다고 보았다. 이후 신공황후에 의해 신라는 정벌되었고 신라가 당을 끌어들이어 한반도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일본을 종주국으로 우려했다고 하였다. 가라 연방은 스진텐노(崇神天皇) 말년에 신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진장의 파견을 요청하여 스이닌텐노(垂仁天皇)의 성세 초에 시오노리츠히코(鹽乘津彦)를 진장에 임명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야마토 조정과 한반도 관계의 첫걸음이고 임나일본부의 발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⁰⁾ 요컨대 야쓰이는 일본서기의 신공황후 삼한정벌설과 임나일본부설을 신봉하였고 이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주나 나주 반남면의 발굴 조사 등 한일관계를 밝힐 수 있을 만한 지역의 고적조사에 열을 올렸던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한편 1915년 7월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는 『朝鮮半島史』 편찬사업³¹⁾을 시작하였는데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한 인물 다수가 여기에도 참여하였다. 『조선반도사』 편찬은 한일병탄 직후 실시되었던 구관제도조사 결과 조선 내의 사료들이 수집되었고, 이를 모아 새로이 조선 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조선반도사』 편찬을 위해서는 수집된 사료 외에도 역사적 사실을 실제 유물로써 확인할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조선반도사』 편찬 목적이나 구성 내용에 맞춰 고적조사사업 결과를 이용하였다고 생각된다.³²⁾

『조선반도사』의 내용을 구성한 즉 조선의 역사를 정리한 『조선반도사』 편집 주임들은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 고적조사위원 또는 조선총독부박물관협의회원,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고적조사와 직원 등 고적조사사업 관련 인물들과 중복되는 인물이 많다. 이는 조선반도사 편찬사업과 고적조사사업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알려준다.

고적조사사업의 주역들이 고적도보 및 『조선반도사』 편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고적조사사업과 고적도보 편찬자, 『조선반도사』 편찬사업, 조선총독부 관계자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의 실제 나아가 고적도보 편찬의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다.

28) 谷井濟一, 「上世に於ける日韓の關係」, 『韓紅葉』, 1909, 1쪽.

29) 谷井濟一, 위의 논문, 1쪽.

30) 谷井濟一, 위의 논문, 3쪽.

31)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주도한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는 1916년 1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로 발족하여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로 바뀌었다.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일본민족의 우위성을 고취하고 역사교육을 통해 한국민의 민족의식을 배제하고자 설립되었다. 그러다 학문적으로 더욱 권위 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하여 1925년 6월 일황칙령에 의해 조선사편수회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된 관청으로 격상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장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도면희, 「조선총독부의 문화 정책과 한국사 구성 체계 -『조선반도사』와 『조선사의 길잡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22, 역사학회, 2014 참고).

32) 김대환,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 『한국상고사학보』 97, 한국상고사학회, 2017, 90쪽.

<표 2> 고적도보 편찬, 고적조사사업, 조선반도사편찬사업, 조선총독부 관계자 명단

소속 이름	『조선고적도 보』 편찬자	고적조사 위원회	조선사 편수회 ³³⁾	조선총독부 ³⁴⁾	조선총독부 박물관 협의회	조선고적 연구회
關野貞	○	○			○	○
谷井濟一	○	○				○
栗山俊一	○					
小場恒吉	○	○		○	○	○
澤俊一	○			○		
小川敬吉	○	○		○		
野守健	○			○		
有吉忠一		○	○			
黑板勝美		○	○		○	○
今西龍		○	○		○	○
小田省吾		○	○	○	○	○
末松雄彦		○			○	○
藤田亮策		○	○	○	○	○
葛城末治			○	○		
劉猛		○	○			
李軫鎬		○	○			
鳥居龍藏		○			○	○
鮎貝房之進					○	○
濱田耕作		○			○	○
長野幹		○	○		○	
今井田清徳		○	○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참고.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고적도보 편찬자들은 대부분 고적조사에 참여하였다. 고적조사위원 중에는 조선총독부 직원도 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선사 편찬 위원으로서 조선사를 간행하는데 활약하였다. 고적조사위원 가운데 건축학 전공자인 세키노 타다시와 구리야마 슌이치, 사진 촬영 기술이 뛰어난 고고학 전공자 야쓰이 세이이치와 각종 도면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오가와 게이키치, 화가인 오바 쓰네키치와 노모리 켄은 고적도보 간행을 맡았다. 조선반도사 및 조선사 편수는 일본 고대사, 동양사, 한국사 등 주로 사학을 전공한 구로이타 가쓰미, 이마니시 류, 오다 쇼고, 후지타 료사쿠 등이 담당하였다.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그들의 전공에 맞게 한국 고적의 도판을 모은 고적도보와 한국 역사에 관한 조선반도사 및 조선사로 나누어 편찬을 도맡은 것이다. 이는 두 사료집이 모두 고적조사사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고적도보는 단순히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편찬되었다. 또한 이후 『조선사』 편수에 있어서도 바탕이 되는 자료로써 조선의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자료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3)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인물도 포함하였다.

34)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 및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을 말한다.

2) 『朝鮮古蹟圖譜』 체제 및 구성

고적도보의 편찬은 일제강점기 당시 귀중한 문헌의 완성으로 고고학상 유익한 자료로 평가되었다.³⁵⁾ 또한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소개한 서적인 고적도보를 발행한 업적으로 책임 편집자인 세키노 타다시는 1917년 프랑스학사원으로부터 스타니스 라스 줄리앙(Stanis Las Julien)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국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³⁶⁾ 이는 한반도를 전체로 하는 지역적 폭넓음과 고대 이전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시대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고적도보는 시대와 지역을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총 15권으로 이루어진 고적도보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표지³⁷⁾를 시작으로 조선총독부 총독의 인장이 찍혀 있고 다음으로는 서언에 각 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았다. 목차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며 본 내용에는 사진과 함께 도판번호, 유적 및 유물명, 출토지역, 소장처 또는 소장자를 표기하였다. 권 마지막 부분에는 유적 분포도를 첨부하였다.

고적도보는 권별 다루는 시대를 달리하고 있는데, 제1책 낙랑·대방군시대를 시작으로 제2책부터 제5책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연립했던 삼국시대³⁸⁾ 및 삼국통일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제6~9책은 고려시대, 제10~15책은 조선시대의 유적·유물을 소개하였다.

각 시대별로 편찬된 고적도보의 구성 가운데 특기할만한 점은 고적도보가 낙랑·대방군시대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가 조선 역사의 출발을 한사군의 설치로부터 비정하고 이를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해 주장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단군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묵살·배제한 것이다. 또한 단군의 존재뿐만 아니라 기자 및 위만조선에 대한 역사적 흔적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를 한사군의 설치에서 구하였다.³⁹⁾

아래의 인용문은 1913년 9월 30일 고적조사 가운데 평양에 관련된 전적에 대한 세키노 타다시의 강연회 기사이다. 이를 통해 고적도보를 주관한 세키노의 단군과 기자 조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 단군이 평양에 都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며 또 그 기록도 있으나 당연히 그 실적을 考함에 황폐무계 믿을만한 證이 없고 그 후 기자가 또한 이 땅에 定都하였다 하나 정확한 증거가

35) 「朝鮮古蹟圖譜は貴重なる文献、今度の分は十冊目十五冊で完成する、關野博士語る」, 『경성일보』, 1929년 11월 15일.

36) 정하미, 「1902년 세키노 타다시의 '조선古蹟조사'와 그 결과물 '한국건축조사보고'에 대한 분석」, 『비교일본학』 47,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2019, 2쪽.

37) 고적도보 표지의 도안은 각 권마다 다르게, 즉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취합하여 구성하였다.(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説』 1~5, '緒言') ; 『朝鮮古蹟圖譜解説』은 총 5권으로 고적도보 수록 사진의 순서에 따라 개략적인 해설을 붙인 자료집이다. 제1책 낙랑군 및 대방군시대와 고구려시대(국내성 지방), 제2책 고구려시대(평양장안지방), 제3책 마한·백제·임나·옥저·예·고신라시대와 삼국시대불상, 제4책 신라통일시대 一, 제5책 신라통일시대 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고적도보의 수록 시대와 같으며 주요 유적과 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6~15책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고적도보해설이 간행되지 않았다. 해설 각 항의 아래에는 고적도보에 기재되어 있는 사진의 번호를 표기하였다. 작성은 고적도보 편찬에 참여한 세키노 타다시,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마 슌이치가 맡았다(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説』 1, '緒言' 1915).

38) 삼한·임나·옥저·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39) 朝鮮總督府, 『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15~18쪽.

없고 한두 개의 傳蹟이 있다고 하나 이는 後人이 慕想하여 追作한 物로 사유하겠고 기타 한편으로 연구
하건대 기자의 古都라云할 자료도 있으나 정녕 이 곳이라고는 지칭하기 不定하였던 蹟으로 茫然하다.
...(후략)...⁴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키노는 단군을 ‘전설’로 규정하고 기자조선의 도읍이 평양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록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부정하였다. 나아가 단군 및 기자의 傳蹟
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후대인이 상상하여 만든 것이라고 역사적 사실조차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적조사위원인 구로이타 가쓰미도 평양 부근 고적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
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선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작년에 내가 이 자리에서도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무릇 각국의 역사를 연구할 경우에는 첫째로 그 나라 역사의 출발점을 생각
해야 한다. ...(중략)... 단군에 관한 전설도 구월산 부근에 있으나 이는 지극히 새로운 전설이고 새로운
국민의 신앙임에도, 이것이 평양 부근에서 전해지는 것은 역시 조선인들의 생각에도 평양 부근이 [조선
의 역사]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략)... 이전에 세키노 박사가 고적조사를 실시
하여 평양 부근에서 소위 낙랑군 시대의 고분이 다수 발견되어 후한 시대의 거울과 기타 유물들이 발견
된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총독부가 발행한 『고적도보』에도 그 결과가 실려 있다. 따라서 평
양 부근의 평원이야말로 가장 먼저 중국의 문명이 도달한 곳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
하는 바이다.⁴¹⁾

구로이타는 역사의 기원을 굉장히 중시하였는데, 조선은 낙랑군시대부터 역사가 시작되었
고, 이 낙랑군은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증거 지역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출발점을
중국의 부속군이었던 한사군 시기로 지정하며 조선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주
장하였다.

위의 두 고적조사위원과 마찬가지로 고적도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朝鮮古蹟
圖譜解説』⁴²⁾ 1편에 따르면, 낙랑·대방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끊임없이 漢과의 연관성이
강조되었다.⁴³⁾ 특히 낙랑군시대의 대표적 고분인 석암동 고분과 대동강면 고분을 대부분 수록
하고 그 부장품에 있어서는 漢代의 와당, 漢과 문양이 같은 기와, 漢魏시대에 속하는 磚, 漢
式의 동경이라고 설명하며 조선 역사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漢 문화를 두드러지게 하였다.⁴⁴⁾

이러한 서술 체제는 박물관 전시 배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조선총독부
박물관 전시배치에서 낙랑·대방군시대의 전시실을 독립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든지⁴⁵⁾ 1933년
10월 개관한 평양부립박물관에서도 주로 낙랑문화를 전시한 사례로 보아⁴⁶⁾ 조선총독부가 낙
랑의 역사를 강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0) 「平南通信：關野博士의 講話」, 『每日申報』, 1913년 10월 4일.

41) 黑板勝美, 「大同江附近の史蹟」, 『朝鮮彙報』, 1916, 5~6쪽.

42) 고적도보 수록 사진의 순서에 따라 개략적인 해설을 붙인 자료집이다. 주요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고 있고,
동일한 유적·유물에 관해서는 편의상 일괄하여 설명하였다. 해설 각 항의 아래에 고적도보에 기재되어 있
는 사진의 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작성은 고적도보 편찬에 참여한 세키노 타다시,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
마 순이치가 맡았다(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説』 1, ‘緒言’ 1915).

43)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説』 1, 1915, 1쪽.

44)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説』 1, 1915, 2~12쪽.

45)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報：第壹號』, 1926, 10쪽.

46) 최석영,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출현과 ‘식민지적 기획」, 『역사와 담론』 27, 호서사학회, 1999, 496쪽.

조선총독부는 고적도보 편찬을 통해 단군의 역사를 말살하고 조선의 역사가 한사군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왔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대 한일관계에 주로 관심을 두었으며, 그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나일본부설은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당시의 고적도보 편찬과 체제가 갖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4. 한국사 왜곡과 문화재 유출

1) 시대별 · 지역별 분류 : 식민 통치 정당성의 입증

고적도보가 시대순으로 그리고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고적도보 전권의 내용을 시대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선총독부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고적도보 전권에 수록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해당 시대에 포함된 유적 · 유물을 분류한 표이다.

<표 3> 고적도보 전권 수록 시대별 유적 · 유물 현황

	낙랑군 시대	대방군 시대	고구려 시대	마한시대	백제시대	임나시대	옥저시대
유적	29	7	244	6	63	20	25
유물	52	9	102	1	26	47	14
합계	81	16	346	7	89	67	39
	옥저시대	예시대	고신라 시대	신라통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미상
유적	25	1	183	223	157	643	6
유물	14	5	184	662	488	171	25
합계	39	6	367	885	645	814	31

『朝鮮古蹟圖譜』 1~15책 참고.

고적도보 수록 유적 · 유물은 신라(고신라시대, 신라통일시대), 조선, 고려 순으로 많이 수록되었다. 신라시대는 총 1,252점, 조선시대 814점, 고려시대는 645점을 담고 있다. 신라는 통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수록 유적과 유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는 시기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수록 유적 · 유물의 수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는 문화적 발달을 이루어 귀중한 유물이 많지만 조선시대보다는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선에 비해 수록 유적과 유물의 수가 적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기적으로 먼 고구려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고구려시대의 유적과 유물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줄 만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정당화하는 이론인 타율성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구려시대가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적도보 전권에 수록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자.

<표 4> 고적도보 전권 수록 목록 지역별 분류

	경상도	경기도	평안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유적	325	494	303	186	65	55
유물	631	286	131	107	153	118
합계	956	780	434	293	218	173
	함경도	황해도	일본	중국	미상 ⁴⁷⁾	
유적	84	38	0	55	1	
유물	20	33	5	45	297	
합계	104	71	5	100	298	

『朝鮮古蹟圖譜』 1~15책 참고.

고적도보에 수록된 유적과 유물을 지역별로 분류해 본 결과 경상도, 경기도, 평안도 등의 순으로 많은 유적과 유물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상도와 경기도, 평안도는 고적도보 수록 유물 가운데 각각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고적도보에는 이 세 지역의 유적과 유물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걸까. 경상도, 경기도, 평안도지역의 유적·유물을 다시 시대별로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표 5> 경상도·경기도·평안도지역의 시대별 유적·유물 현황

시대	경상도		경기도		평안도	
	유적	유물	유적	유물	유적	유물
낙랑군시대					28	49
대방군시대						
고구려시대			7	0	162	57
마한시대						
백제시대			0	3		
임나시대	20	47				
옥저시대						
예시대						
고신라시대	102	108	6	0		
신라통일시대	112	400	1	2		
고려시대	14	67	60	151	41	18
조선시대	77	5	420	126	67	5
미상	0	4	0	4	5	2
합계	325	631	494	286	303	131
	956		780		434	

『朝鮮古蹟圖譜』 1~15책 참고.

경상도의 경우 가장 먼저 수록된 유적과 유물은 임나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나의 왕궁지, 산성지, 고분 등 일본이 임나시대라고 주장하는 유적과 유물이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통일신라시대 이전(총 277매)과 통일신라시대(총 512매)의 유적과 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전체 경상도 지역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따라서 경상도는 임나시대와 더불어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임나시대의 경우 주로 경상북도 고령과 경상남도 함안, 창녕, 김해,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적과 유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임나일본부가

47) 고적도보에는 지역 미상의 유적·유물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고적도보 수록 전체 유적과 유물의 7% 정도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고분 또는 석탑에서 출토된 부장품으로 고적조사 당시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무분별하게 수집되었는지 예상할 수 있다.

존재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 고적조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 강점 이전부터 일본인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었다. 이중에서 함안은 ‘임나제국’의 하나로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함안의 故國은 소위 加羅諸國 즉 任那諸國의 하나로서 일본사의 安羅國이다. …(중략)… 安羅는 後漢末에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三國志 東夷韓傳에는 弁辰 12국의 하나로 安羅國을 언급하였다. 神功皇后가 평정하였다고 전해지는 7국 중 하나이다. 이 나라는 일찍이 일본에 복속되어 그 원조를 칭하고 고령가야, 금관가야 등과 함께 신라에 대항하고 백제에 맞서며 나라를 유지하였다. …(중략)… 함안의 땅은 일본에게는 南韓과의 교통상, 경영상 중요한 땅이다. 일본의 武人 등이 駐在하는 것도 欽命天皇시대에는 安羅日本府라는 이름이 있음에 이르렀다.⁴⁸⁾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함안은 임나제국의 하나로서 일본사의 안라국으로 일찍이 일본에 복속되어 유지된 나라라고 하였다. 고적조사위원 구로이타 가쓰미는 “함안은 安羅의 日本府址로 추정되므로 정밀하게 조사하고자 한다.”⁴⁹⁾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함안을 조사 지역으로 설정한 목적이 임나일본부의 설치 지역을 밝혀내는데 있었음을 예상케 한다. 또 다른 고적조사위원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1881~1938)는 임나 지역 고적조사사업 결과, 임나의 고분이 구조나 유물 등에서 일본 고분과 지방적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한반도 남부 지역의 고대 문화와 일본 고대 문화는 ‘자매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⁵⁰⁾

세키노 타다시는 임나시대 고적조사를 통해 한국의 고대사가 일본에 복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상남도 김해에 대해서 “옛날 일본의 임나부가 있었던 곳으로 즉 대가야국의 故地”라고 보았다.⁵¹⁾ 그는 이러한 인식 아래 이루어진 고적조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임나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소개함으로써 고대 한일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적도보 제3책 임나시대 수록 부분에서 함안 부근 지형견취도를 포함시키고 일본부를 설치했던 지역이라고 설명하였다.⁵²⁾

아울러 경주 지역도 임나 지역과 같이 일본의 옛 영토로서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주는 신라 고도의 고분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대 유물의 寶庫로 고적조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각광받는 지역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어떠한 이유로 경주 지역의 고적조사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공황후가 친히 정벌한 곳이 즉 경주로서 가까이는 豐太閣이 침공한 곳도 이 지방이다. 또한 야마토 민족인 신라왕이 있었으며 귀화한 신라인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땅은 옛적에 일본의 일부였고 이 지방은 일본의 옛 식민지를 이루었다. 우리의 흥미는 특히 이러한 여러 면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유물과 遺址가 풍부한 것은 비단 경주의 자랑에 그치지 않고 실로 조선의 자랑이며 우리 제국이 마땅히 자랑해야 할 바이다. …(중략)… 생각하건대 신라의 舊史는 이를

48) 朝鮮總督府,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1920, 6~7쪽.

49) 「南鮮史蹟의 踏査(八), 第二期任那日本府의 所在地」, 『毎日申報』, 1915년 8월 8일.

50) 濱田耕作, 「朝鮮に於ける考古學的調査研究と日本考古學」, 『日本民族』, 東京人類學會, 1935, 452~459쪽.

51) 류시현, 「1900~1910년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 문화 연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19,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6쪽.

52)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解説』 3, 1916, 14~15쪽.

紙面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물에서 찾고 땅 속에서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주의 보존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⁵³⁾

위의 기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경주를 예부터 일본의 땅으로 인식하였다. 즉 경주는 일본의 식민지를 이루었던 지역이었고 이 땅의 풍부한 유적과 유물은 조선 나아가 일본의 자랑이며 보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주가 옛 일본의 일부였다는 조선총독부의 주장은 일제의 식민 지배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때문에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신공황후 신라정벌설은 일제에게는 그들이 조선을 지배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료였다. 고적조사가 경주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고적도보 수록 유적과 유물이 신라시대에 집중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경기도는 고려의 수도 개성과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다수 출토·발굴되었다. 또한 개성·경성을 포함하여 강화, 장단, 양주, 광주, 여주, 파주, 수원 등에 산재해 있는 고려와 조선의 유적·유물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다. 위 지역들은 고려·조선시대에 조성된 궁궐과 역대 왕릉, 사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적조사 대상 지역에서 늘 빠지지 않았다.

평안도 지역은 대부분 낙랑과 고구려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담고 있다. 수록 유적과 유물의 절반 이상이 이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낙랑군시대에 있어서는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군면의 낙랑군치지, 대표 고분인 석암동 고분 및 대동강면의 고분과 부장품들을 수록하였다. 고구려시대는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 유역의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선고적도보해설』에서 낙랑과 고구려시대의 유적·유물을 설명할 때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타율성론을 내세워 일제의 조선 점령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식민지 조선의 전통이나 고유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 문화의 타율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고적조사위원 후지타 료사쿠가 정리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 논문 중 한사군, 고구려시대에 관한 글이다.

서력 전 108년 漢 武帝에 의해 조선 북부에 위치한 낙랑군 이하 四郡의 유적은 조선의 유사 이후 최초의 중요한 유적이다.⁵⁴⁾

고구려시대의 고분 발굴은 1913년(大正 2)에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묘리 고적 발굴에 따라 유명한 벽화가 있는 크고 작은 2기의 고분이 완전하게 보호되었고, 다음으로 용강군 대대면 감신총, 신녕면 성총·수총의 발견되고 있어 중국 남북조의 화풍을 전할 만한 우수한 회화를 조선의 일각에서 보존할 수 있음은 크게 인정받아 마땅하다.⁵⁵⁾

후지타는 한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한사군의 유적은 조선의 유사 이후 최초의 중요한 유적이고, 중국 남북조의 화풍을 전할 만한 우수한 회화를 지닌 고구려시대의 고분은 보호해야 마땅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땅에서 보이는 중국의 문화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보존해야만 하는 이유는 한국사의 출발이 낙랑군 설치를 통한 선진적인 중국 문물과 제도의 수입에

53) 「慶州ノ古蹟ニ就テ」, 『朝鮮總督府月報』, 1912년 11월 20일.

54) 藤田亮策, 앞의 논문, 1931, 1040쪽.

55) 藤田亮策, 위의 논문, 1931, 1041쪽.

의한다는 타율성론을 설명하는 물적 증거로 봤기 때문이다.⁵⁶⁾ 이는 고적조사위원 구로이타 가쓰미가 1921년 도쿄에서 열린 조선문화강연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해 보다 잘 알 수 있다.

나는 고분연구로부터 상당히 오래된 시대와 고분이 조선의 북쪽에 분포되어 있다 생각했다. 그래서 압록 강으로부터 조금씩 대동강, 그 중간의 성천강 같은 유역을 조사해 왔다. 그리고 가장 중국식의 묘가 있는 곳은 대동강 유역이었다. ...(중략)... 평양은 중국 식민지로 말할 수 있는데, 중국인이 발전시킨 최초의 중심지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남측에 인접한 토성이 있었는데, 이 토성에서는 후한시대 낙랑군의 기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략)... 이 평양부근이라고 불리는 곳은 진실로 중국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발견되는 기와가 평양부근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중략)... 중국문화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자 이 부근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⁵⁷⁾

구로이타는 고적조사에 참여한 1915년부터 한반도 북부의 유적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앞 장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는 항상 조선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하였고, 결론적으로 최초의 중국 문명 수용지는 평양이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중국화된 낙랑유적이 발견되었고 이 곳이 조선역사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반도 북부 대동강 유역은 중국인들이 조선 지배를 위해 설치한 낙랑군이 있었던 곳으로, 이들 유적의 조사를 통해서 식민사관을 관철시키는데 필요한 고고학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다. 본격적인 고적조사사업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의 일순위로 규정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⁵⁸⁾

한편 평양은 고구려시대 문화의 중심지로도 주목을 받았다. 낙랑군시대와 같이 중국 문화의 영향성을 설명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다분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고적도보에도 고구려시대의 고분의 양식, 출토 유물의 형태와 문양, 고분 벽화의 양식 등을 통해 중국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중국 문화와의 동질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발굴조사 결과 조선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음이 강조되었다.

이상을 통해 고적도보는 수록 유적과 유물에 있어서 시대별로는 신라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지역별로는 주로 임나와 신라를 나타내는 경상도, 고려와 조선에 해당하는 경기도, 낙랑과 고구려를 보여주는 평안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그들의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대 또는 근거지의 유적과 유물을 배치해 이를 선전하고자 하는 일제의 제국주의적 정책 아래 고적도보를 편찬했음을 잘 보여준다.

4. 소장처(자)별 분류 : 우리 문화재의 산일 · 반출의 기회

고적도보에 수록되어 있는 유물들은 그 소장처 또는 소장자가 표기되어 있다. 이들 소장처와 소장자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현재 해당 유물의 소재 역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물 수집에만 급급했던 고적 조사의 유물 처리 과정으로 소장처나 소장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적도보를 통해 파악된 소장처 및 소장자는 조선총독부, 이왕가박물관, 각 지역의 고적보

56) 정인성,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71, 한국상고사학회, 2011, 12쪽.

57) 黑板勝美, 「朝鮮の歴史的考察」, 『朝鮮』, 1921, 48~68쪽(국성하,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낙랑군 인식과 평양부립박물관」, 『고문화』 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4, 111~112쪽 재인용).

58) 최혜정, 「일제의 평양지역 고적조사사업과 고적보존회의 활동」, 『역사와 세계』 32, 효원사학회, 2007, 8쪽.

존회 등 조선총독부 또는 조선총독부 관련 기관과 조직이 소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고적조사에 참여했거나 조선총독부 관련 인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어떠한 경위로 조선의 유물들을 소장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고적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유산들이 파괴되고 산일되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고적도보 수록 유물의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표 6> 고적도보 전권 수록 목록 소장처 분류

조선	이왕가박물관	635	개성보승회	6
	조선총독부박물관	573	富田商會	4
	조선총독부	289	평안남도교육회	3
	조선민족미술관	54	조선미술박물관	2
	경주고적보존회	35	晉州朝日旅館	2
	지역 자체 소장	30	강릉측후소	1
합계	1,634			
일본	동경제대 공과대학	124	동경박물관	1
	동경제대 문과대학	46	孤蓬庵	1
	동경미술학교	29	日本奈良縣 當麻寺	1
	동경제실박물관	26	高野山 圓通寺	1
	大倉集古館	17	高野山 常喜院	1
	동경	2	ガスビー	1
	嚴島 大願寺	2		
합계	252			
만주	남만주철도회사	1		
미국	ボストン美術館	2		
합계	3			
『朝鮮古蹟圖譜』 1~15책 참고.				

고적도보에 수록되어 있는 유물을 소장처별로 분류해 보면 조선, 일본, 만주, 미국에 각각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조선 내에 있는 것은 모두 1,634개로 이왕가박물관이 635개를 소장하며 가장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조선총독부박물관 573개, 조선총독부 소장이 289개, 조선민족미술관 54개, 경주고적보존회 35개 등 조선총독부 또는 조선총독부 관련 기관과 조직에서 유물들을 소장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민족미술관은 이왕가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고적보존회와 같이 조선총독부 관련 기관 혹은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조선민족미술관은 1924년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1961)와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1891~1931)의 발의로 경복궁 집경당에 만들어진 미술관이다.⁵⁹⁾ 조선의 공예품은 조선의 땅에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미술관의 이름에 표기되어 있듯이 조선의 민족·민속·민중 공예품이 주로 수집되고 전시되었다.⁶⁰⁾ 고적도보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민족미술관 소장품 또한 모두 조선시대의 자기로 편호, 수병, 수주, 필통, 수적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59) 아사카와 다쿠미의 형인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 1884~1964)에 따르면 1916년 조선 자기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에 와서 이 때부터 조선 자기 수집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야나기와 아사카와 형제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조선민족미술관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도쿄에서도 조선도기전람회가 열릴 만큼 그들 수집품의 수는 상당했다(淺川伯教, 「朝鮮の美術工藝に就いての回顧」, 『朝鮮の回顧』, 近澤書店, 1945, 273~274쪽).

60) 박정희, 「'조선민족미술관'과 아사카와 다쿠미」,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7쪽.

공예품이다.

일본의 경우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124개로 가장 많고 동 대학 문과대학이 46개로 그 다음으로 많은 유물을 소장하였다. 동경제국대학 외에도 동경미술학교 29개, 동경제실박물관 26개, 大倉集古館 17개 등 총 252개의 유물이 일본 내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만주, 미국에도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동경제국대학의 공과대학이다. 이 경우 학술적인 목적으로 조선 출토 유물들을 수장하였다고 한다. 즉 다수의 유물을 “골동적인 의미로 발굴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위해 발굴한 것이므로, 대학에 가지고 가서 연구가 끝나면 돌려보낼”⁶¹⁾ 예정이라고 하며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제3구역 조선의 部는 복도 및 제3실에서 전시 중인데, 세키노 조교수 일행이 조선에서 3회에 걸쳐 가져 온 것으로 재료가 풍부하여 일일이 셀 수 없다. ... (중략) ... 제2 낙랑 평양부 대동강면 상오리 석암동 (능동)에서 발견된 漢鏡, 고려검, 오수전, 가마, 시루, 墓塼 등은 제3 대방의 墓塼, 「唐土城」 발견 벽돌과 함께 이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연구자료이다.⁶²⁾

1912년 4월 10일부터 3일간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 본관 위 건축학과 교실에서 동경제국대학 건축학과 제4회 전람회가 개최되었다.⁶³⁾ 당시 전시품은 제1 南淸, 제2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제3 조선, 제4 유럽의 네 구역으로 구분하여 진열하였는데, 제3 조선실에서는 제1 마한부터 제9 조선시대까지 관련 수집품이 전시되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그 중 제2 부분의 낙랑과 관련해서는 세키노 일행이 평양부 대동강면 상오리 석암동에서 가지고 온 유물이 전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적도보 제1책 석암동 고분 부장품들의 주요 소장처가 동경공과대학으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세키노 박사 일행이 발굴조사를 마친 후 동경공과대학에 유출한 것이다.

낙랑군 유적에서 다수의 칠공예품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보존법이 매우 수고스럽고 곤란하기 때문에, 수집가인 하시즈메(橋都)씨나 도미타(富田)씨 등은 애써 수집한 물품을 전부 동경의 미술학교에 기증하였다.⁶⁴⁾

또한 낙랑의 유물들은 개인 수집가인 하시즈메 요시키(橋都芳樹, 생몰연대 미상)와 도미타 신지(富田普二, 생몰연대 미상)에 의해 동경미술학교에 기증되었다. 세키노와 같은 조선총독부 관련자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도 조선의 고분은 발굴되었고 유물들은 수집되고 유출까지 된 것이다. 고적도보에 명시되어 있는 동경미술학교 소장품은 모두 신라의 기와, 벽돌 등인데 이는 신라 이외에도 낙랑 나아가 조선 전 시대의 유물들이 다수 동경미술학교에 소장되어 있음을 추정케 한다.

공학박사 세키노 타다시, 야쓰이 세이이치 두 사람은 본회에 만주 집안현 온화보 동강 태왕릉에서 발견된 명문이 새겨진 벽돌 파편 및 화와 파편 총 100여 점을 기증하였다. 지난 12월 현품을 틀림없이 수령하였고, 깊이 그 호의에 감사드린다.⁶⁵⁾

61) 「發掘品はお返しする研究調査すみ次第：東大の黒板博士語る」, 『京城日報』, 1925년 11월 25일.

62) 「東京大學工科大学建築學科第四回展覽會(上)」, 『考古學雜誌』 2, 考古學會, 1912, 554쪽.

63) 考古學會, 위의 논문, 552쪽.

64) 八田蒼明, 『樂浪と傳説の平壤』, 平壤研究會, 1934, 192쪽(황수영, 앞의 책, 88쪽 재인용).

세키노와 야쓰이는 낙량의 유물 외에도 만주 집안현에서 고구려시대의 고적조사를 마친 후 그 가운데 태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일본 고고학회에 기증의 형태로 유출하였다. 고적도보에 수록되어 있는 태왕릉 유물은 모두 조선총독부의 소장품으로 되어 있는데 고적조사 이후 수집된 유물 중 극히 소량의 것만 조선에 남기고 모두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다. 하지만 세키노나 야쓰이 개인이 소장한 것이 아니라 일본 고고학회에 기증한 것으로 보아 이들 유물도 학술적인 목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소재한 조선의 유물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조선의 고적을 조사한 고적조사위원들에 의해 주로 반출되었다. 요컨대 조선의 문화재는 일본 내의 전시를 위해서 또는 일본 대학의 연구를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 한국에 있어야 할 우리의 유물들이 일본으로 유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다룬 유물은 극히 일부이고 현재 유출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유물들의 유출 경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적도보 수록 유물을 소장자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10개 이상 소장하고 있는 인물들만 정리하였다.

<표 7> 고적도보 전권 수록 목록 소장자 분류

이름	개수
小平亮三	51
諸鹿央雄	47
永田英三	22
松原純一	21
關野貞, 田中明	19
新田留次郎	15
中田市五郎, 李秉直, 咸錫泰	14
阿川重郎	13
谷井濟一, 住井辰男, 森辰男, 金容鎮	12
中村誠	11
清水幸次郎, 張澤相	10
『朝鮮古蹟圖譜』 1~15책 참고.	

고적도보 제8, 9, 14, 15책은 각각 고려시대 도자기, 고려시대 금속기·옥석기, 조선시대 회화, 조선시대 도기를 수록하였다. 특히 제8, 9, 14, 15책들에는 공예품 또는 미술품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수집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자가 민간인일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개인 소장자 중 가장 많은 유물을 소유한 사람은 고다이다 료조(小平亮三, 생몰연대 미상)로 총 51개의 유물들을 소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경주금융조합 이사로, 와 및 전 등 경주 고분에서 발견된 다수의 부장품들을 소장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생몰연대 미상)가 총 47개의 유물들을, 나가타 에이조(永田英三, 생몰연대 미상)⁶⁶⁾가 총 22개,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생몰연대 미상)⁶⁷⁾가 총 21개, 세키노 타다시가 총 19개의 유물을

65) 「高句麗磚瓦片の寄贈」, 『考古學雜誌』 4, 考古學會, 1914, 390쪽.

66) 1912년 경성종로공립심상고등소학교 공도로 조선에 와 1925년부터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교유, 1929년에는 축탁을 맡았다(『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참고).

67) 조선은행 직원으로 1937년에는 조선은행 총재로 임명되었다. 또한 1938년부터는 조선총독부 저축장려위원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선의 유물을 소장한 개인 소장가 중 상위 다섯 손가락 안에 고적조사위원 세키노 타다시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고적조사에 임하고 있던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유물에 대한 높은 수집 열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당시 고적조사위원들의 임무 중에는 “부장품의 수집에 주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었다. 즉 이 지침에 따라 이들은 골동상점이나 중간 매입자를 거치지 않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유물을 수집·반출하는 일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특히 모로가 히데오는 경주박물관 관장으로 다수의 유물들을 소장하였다. 석침, 석족좌, 기와 및 柄頭와 교구 등의 장식품, 벽돌과 옥류 등 소장 유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고적도보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소장품 47개는 모두 경주 지역에서 출토·발견된 것으로 박물관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물을 다수 소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1933년 조선중앙일보에 모로가 히데오가 도굴 및 장물고매죄로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원의 판결을 받은 기사로 보아 그의 유물 소장과 매매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한다.⁶⁹⁾

이상의 상위 5명 이외에 고적도보 수록 소장자 분류에 따라 10개 이상의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장가로는 다나카 아키라(田中明, 생물연대 미상), 신타 류지로(新田留次郎, 생물연대 미상), 나카다 이치고로(中田市五郎, 생물연대 미상), 이병직(1896~1973), 함석태(1889~?), 아가와 시게로(阿川重郎, 1870~1943), 야쓰이 세이이치, 스미이 다쓰오(住井辰男, 1881~1962), 모리 타츠오(森辰男, 1909~?), 김용진(1882~1968), 나카무라 마코토(中村誠, 생물연대 미상), 시미즈 고우지(清水幸次, 생물연대 미상)⁷⁰⁾, 장택상(1893~1969)이 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와 관련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양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다나카 아키라, 신타 류지로, 야쓰이 세이이치, 김용진, 나카무라 마코토, 장택상이 해당되며 조선총독부 직원이거나 고적조사위원 또는 친일에 가담한 조선인이다. 후자는 조선총독부와 관련 없는 일반인으로 나카다 이치고로, 이병직, 함석태, 아가와 시게로, 스미이 다쓰오, 모리 타츠오, 시미즈 고우지가 해당된다. 이는 또 대한철도회사 고문기사인 아가와 시게로, 미쓰이물산주식회사 직원인 스미이 다쓰오, 본정호텔 대표인 모리 타츠오와 서화가 이병직,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로 나눌 수 있다. 즉 조선총독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인 자본가와 그렇지 않은 조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적도보 수록 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개인들은 조선총독부 고관이나, 관료, 사업가, 예술인, 의사 등 여러 직종과 직업에 걸쳐 있었으며, 특히 조선총독부 고관이나 관리의 비중이 컸다.⁷¹⁾

고적도보 수록 유물의 소장자를 살펴본 결과 조선총독부 직원, 고적조사위원, 일본인 자본가 등이 고적조사·보존, 개인의 취미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유물들을 다수 소장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보존은커녕 우리의 문화재들이 반출·산일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고적도보 편찬을 통해 소장처, 소장자를 명시함으로써 한

회,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위원회, 물가위원회 등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의 직원도 검임하였다(『鮮銀店長異動』, 『毎日申報』, 1916년 5월 30일 ; 『松原純一氏 七月朝에 入京』,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참고).

68) 최혜정, 앞의 논문, 13쪽.

69) 『諸鹿央雄에 執行猶豫判決』, 『조선중앙일보』, 1933년 10월 1일.

70) 고적도보에는 清水幸次郎로 표기되었다.

71) 김상엽, 「경성의 미술시장과 일본인 수집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4, 6쪽.

반도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그들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 및 고적도보 편찬의 양면성을 읽어볼 수 있다.

5. 맺음말

조선총독부는 1910년 한일병탄 이후 한반도의 문화유산들을 발굴·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인과의 문화적 통합 및 정신적 동화를 이루고 식민지 조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지배방침으로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적도보를 편찬·간행하였다.

일제강점기 35년간 조선총독부는 지속적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 타울성론 등 식민지 지배의 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역으로 날조된 식민지 지배 논리에 고적조사 결과를 끼워 맞춰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켰다.⁷²⁾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고적도보는 일본인이 조선에 남긴 자랑스러운 기념비의 하나라고 미화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지배 도구로 적극 활용하였다.

고적도보는 낙랑·대방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조선의 유적·유물의 사진을 시대별로 담은 최초의 자료집이다. 사진과 함께 도판번호, 유적과 유물명, 출토지역, 소장처·소장자 및 유적 분포도 등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촬영한 엄청난 양의 유리건판 사진은 한반도 전체 문화재 연구의 기본 자료로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고적도보의 발간은 1915년부터 1935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써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취사선택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 더불어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유적 및 유물이 그들의 손에 의해 조사·수집·정리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이를 서양제국에 배포함으로써 조선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적도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문화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였다는 사료적 가치는 지니고 있으나 식민지 동화정책의 근거이자 역사왜곡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치명적 한계를 갖는다.

조선총독부의 제국주의적 정책 아래 만들어진 고적도보는 제1책 낙랑·대방군을 시작으로 삼국시대, 삼국통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순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역사의 출발점이 낙랑·대방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조선이 처음부터 외세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타율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과 조선인의 독자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고적도보의 편찬 목적은 편집자 개개인의 조선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인식, 고적조사사업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성 등을 통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책임 편집자인 세키노 타다시는 최초로 조선 미술사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는 한반도 문화의 시작을 낙랑군 시대로부터 보고 그 문화는 점차 발전을 이루어 통일신라시대에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나 고려·조선에 이르러서는 쇠퇴하고 타락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 다른 편집자인 야쓰이 세이이치는 한일병탄 이전부터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설과 임나일본부설을 신봉하며 그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역 조사에 몰두하였다. 다시 말해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지역의 고적조사를 통해 일제의 조선 강점은 조선 상제사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즉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72) 김대환, 앞의 논문, 81쪽.

된 일제 강점의 상황은 본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편집자들의 인식은 고적도보가 조선총독부의 식민 지배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편찬되었음을 알려준다.

고적도보 수록 유적과 유물은 시대별로는 신라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지역별로는 경상도, 경기도, 평안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이 시대와 지역을 강조함으로써 임나일본부설, 타율성론 등 식민사관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유적과 유물에 대해 재해석·재평가하며 그들의 정책에 맞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정리하였다.

고적도보를 통해 파악된 조선 유물의 소장처는 조선총독부, 이왕가박물관, 각 지역의 고적보존회 등 조선총독부 또는 조선총독부 관련 기관과 조직이 소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이외의 유물은 당시 고적도보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에 의해 일본 등 국외로 반출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일본에 유출된 조선의 유물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선의 고적을 조사한 고적조사위원회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일본 내의 전시나 일본 대학의 연구를 위해서라는 학술적 목적 하에 이뤄졌다. 당시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된 것일지라도 이는 마땅히 한반도에 있어야 할 조선의 유물들이 타지로 유출된 것에 다름없다.

고적도보를 통해 파악된 조선 유물의 소장자는 주로 조선총독부 직원, 고적조사위원, 일본인 자본가 등이며 일부 조선인 재력가들에 의해서도 수집·소장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고 이를 보존하며 나아가 일반인들에게 조선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고적조사사업 및 고적도보를 편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재들이 보다 쉽게 국외로 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제 아래 정리되기도 산일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고적도보의 연구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데 미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적도보의 편찬 경위에서부터 체제, 수록 내용 등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시대별, 지역별, 소장처·소장자별로 분석함으로써 고적도보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고적도보 분석을 통해 우리의 유물들이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무수히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부족하게나마 고적도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 및 고적도보를 기초로 파악되지 않은 우리 문화재의 유출 경위를 확인하여 문화재 반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사료

-고적도보 및 고적조사 자료

『朝鮮古蹟圖譜』, 『朝鮮古蹟圖譜解説』, 『古蹟調査報告』, 『古蹟調査特別報告』, 『朝鮮古蹟報告』, 『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遺蹟略報告』, 『朝鮮古蹟調査略報告』, 『韓國建築調査報告』, 『韓紅葉』

-조선총독부 자료

『朝鮮總督府施政年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月報』, 『朝鮮彙報』, 『朝鮮』,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博物館報』,

-잡지 및 신문 자료

『考古學雜誌』, 『歷史地理』, 『朝鮮學報』,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每日申報』, 『京城日報』

2. 단행본

류시현, 『조선 문화에 관한 제국의 시선 -세키노 타다시의 연구 중심으로-』, 아연출판부, 2019.

박찬승 외 3명,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민속원, 2018.

신종원, 『일본인들의 단군연구』, 민속원, 2009.

오영찬, 『낙랑군 연구 -고조선계와 한(漢)계의 종족 융합을 통한 낙랑인의 형성-』, 사계절, 2006.

이경민, 『제국의 렌즈 -식민지 사진과 ‘만들어진’ 우리 근대의 초상-』, 산책자, 2010.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정규홍, 『유랑의 문화재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들에 대한 보고서-』, 학연문화사, 2009.

정인보 저, 문성재 역, 『조선사연구 上·下 -오천년간 조선의 얼-』,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 ~2013.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

황수영,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關野貞,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932.

_____,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1941.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1948.

八田蒼明, 『樂浪と傳説の平壤』, 平壤研究會, 1934.

梅原末治, 『朝鮮古代の文化』, 國書刊行會, 1972.

小泉巖夫, 『朝鮮古代遺跡の遍歴 -発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1986.

3. 연구논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1909년 『조선고적조사』의 기억」, 2016.
- 국성하,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낙랑군 인식과 평양부립박물관」, 『고문화』 63, 한국대학박물관 협회, 2004.
- _____, 「일제강점기 고적조사보존사업의 식민성 연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연구』 18, 연세대학교교육연구소, 2005.
- 김대환,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 『한국상고사학보』 97, 한국상고사학회, 2017.
- 김란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유적조사 행적과 그 성격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07-05),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
- 김상엽, 「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장가 1 -장택상-」, 『동양고전연구』 34, 동양고전학회, 2009.
- _____, 「근대의 서화가 松隱 李秉直의 생애와 수장활동」, 『동양고전연구』 41, 동양고전학회, 2010.
- _____, 「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장가 -치과의사 함석태-」, 『향토서울』 7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 _____, 「경성의 미술시장과 일본인 수장가」, 『한국근대미술사학』 27,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4.
- 김신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동화정책」, 『동국사학』 6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 김종수,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지선, 「조선총독부 문화재정책의 변화와 특성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진원, 「朝鮮總督府의 佛教文化財 政策 研究」,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도면희, 「조선총독부의 문화 정책과 한국사 구성 체계 -『조선반도사』와 『조선사의 길잡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22, 역사학회, 2014.
- 류미나,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업에 대한 평가와 인식 -패전 후 일본 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2020.
- 류시현, 「한말 일제 초 단군과 고조선 인식의 체계화 -신채호·최남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1, 고려사학회, 2015.
- _____, 「1900~1910년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조선 문화 연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19,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박나래, 「조선총독부의 '임나' 지역 고적조사사업」, 경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박선애, 「조선 총독부의 문화재 정리사업 연구」, 동의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정희, 「'조선민족미술관'과 아사카와 다쿠미」,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지영, 「일제강점기 고구려 벽화고분 연구 -조선고적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박진이, 「일제강점기 문화재 반출과 조선인의 대응」, 강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박찬흥, 「『朝鮮史』(朝鮮史編修會 編)의 편찬 체제와 성격 -제1편 제1권(朝鮮史料)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99, 한국사학회, 2010.
- 안춘배, 「考古學上에서 본 任那日本府說」, 『가라문화』 8, 경남대학교박물관가라문화연구소, 1990.
- 양시은,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38, 고구려발해학회, 2010.
- 오세탁, 「日帝의 文化財政策 -그 制度的 側面을 中心으로-」, 『文化財』 2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 오영찬, 「朝鮮古蹟研究會의 설립과 운영 -1931~1932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1.
- _____, 「열패한 식민지 문화의 전파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설립 배경-」, 『서울과 역사』 105, 서울역사편찬원, 2020.
- 오춘영, 「일제강점기 문화재 정책 형성과정 연구 -위원회 구성과 목록 변화를 중심으로-」, 『文化財』 5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 _____, 「韓國 近代 ‘文化財’ 認識의 形成과 變容」, 충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우동선, 「세끼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고건축 조사와 보존에 대한 연구 -문제의 소재-」, 『한국근대미술사학』 11,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3.
- 이구열, 「日帝의 한국 문화재 파괴와 약탈」,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이기성,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34), 한국고고학회, 2010.
- _____, 「일제강점기 ‘古都’의 고적조사 -초기 고적조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79, 호서사학회, 2016.
- 이병호,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의 고적조사와 쌍릉 출토품」, 『백제문화』 56,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7.
- 이성시,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쓰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9.
- _____,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주의 -그 극복을 위한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한국고대사학회, 2011.
- _____,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총독부박물관」, 『美術資料』 87, 국립중앙박물관, 2015.
- 이주현, 「탈식민지고고학의 한계와 문화유산의 재인식」, 『신라사학보』 47, 신라사학회, 2019.
- 이희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고건축 사진을 통해 본 일본제국주의의 이미지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0.
- 임나래, 「일제강점기 개성·평양 부립박물관의 설립과 의의」,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15.
- 장 신, 「조선총독부의 朝鮮半島史 편찬사업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정상우,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의 편찬과 사건 선별 기준에 대하여 -『朝鮮史』 제4·5·6편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 정인성,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71, 한국상고사학회, 2011.
- _____, 「일제강점기 羅州 潘南面 古墳群의 발굴과 야쓰이세이이쓰(谷井濟一)」, 『백산학보』 103, 백산학회, 2015.

- 정하미, 「1902년 세키노 타다시의 '조선古蹟조사'와 그 결과물 '한국건축조사보고'에 대한 분석」, 『비교일본학』 47,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2019.
- 차순철,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文化財』 3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 _____,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신라사학보』 17, 2009.
- 최보영, 「鄭寅普의 『조선사연구』에 나타난 한국고대사 계승인식」, 『한국 고대사 계승 인식 II -근현대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9.
- 최석영,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출현과 '식민지적 기획」, 『역사와 담론』 27, 호서사학회, 1999.
- _____, 「일제 강점기 박물관의 전시 성격 -개성·평양부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생활문물연구』 3, 국립민속박물관, 2001.
- _____, 「일제 하 경주 고적조사·발굴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초적 연구」, 『역사와 역사교육』 33, 웅진사학회, 2017.
- 최혜정, 「일제의 평양지역 고적조사사업과 고적보존회의 활동」, 『역사와 세계』 32, 효원사학회, 2007.
- 홍성익, 「조선총독부 刊,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의 체제와 史料的 價值」, 『강원문화연구』 34, 강원대학교강원문화연구소, 2015.
- 濱田耕作, 「朝鮮に於ける考古學的調査研究と日本考古學」, 『日本民族』, 東京人類學會, 1935.

<부 록>

고적도보 권별 수록 시대와 발간 일자

권	시대	발간일자
第一冊	一 樂浪及帶方郡時代 二 高句麗時代 (國內城地方, 支那盛京省輯安縣)	大正4년(1915) 3월31일
第二冊	二 高句麗時代 (平壤長安城地方, 平安南道 平壤附近)	大正4년(1915) 3월31일
第三冊	三 馬韓時代 四 百濟時代 五 任那時代 六 沃沮時代 七 濊時代 八 古新羅時代 三國時代佛像	大正5년(1916) 3월31일
第四冊	九 新羅統一時代 一	大正5년(1916) 3월31일
第五冊	九 新羅統一時代 二	大正6년(1917) 3월31일
第六冊	十 高麗時代 一	大正7년(1918) 3월31일
第七冊	十 高麗時代 二	大正9년(1920) 3월31일
第八冊	十 高麗時代 三 고려시대 공예품, 조선총독부박물관·이왕가박물관·동경제실박물관·동경제국대학공학부 및 大倉集古館 소장품, 개인 수집품 陶瓷器	昭和3년(1928) 3월31일
第九冊	十 高麗時代 四 고려시대 공예품, 조선총독부박물관·이왕가박물관·동경제실박물관·동경제국대학공학부 및 大倉集古館 소장품, 개인 수집품 金屬器, 玉石器	昭和4년(1929) 3월26일
第十冊	朝鮮時代 建造物 宮殿建築 景福·昌德·昌慶·慶熙	昭和5년(1930) 3월26일
第十一冊	朝鮮時代 建造物 城郭·壇·廟祀·學校·文廟·客舍·史庫·書院·先儒住宅·歷代王陵	昭和6년(1931) 3월26일
第十二冊	朝鮮時代 佛寺建築 一 平安南北道·黃海道·京畿道·咸鏡南道·江原道·忠清南北道·慶尙北道 追加 高麗時代末 心源寺大雄殿 (第六冊 高麗時代 建造物 補) : 高麗時代 佛寺建築	昭和7년(1932) 3월26일
第十三冊	朝鮮時代 佛寺建築 二 慶尙南道·全羅南北道 朝鮮時代 塔婆·墓塔·石碑·橋梁	昭和8년(1933) 3월26일
第十四冊	朝鮮時代 繪畫 (主 조선총독부박물관·이왕가박물관, 補 동경미술학교·大倉集古館·민간 수집가 소장)	昭和9년(1934) 3월26일
第十五冊	朝鮮時代 陶器 (主 조선총독부박물관·이왕가박물관 소장품, 補 조선민족미술관·私人 수집품)	昭和10년(1935) 6월31일
『朝鮮古蹟圖譜』 1~15책 참고.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의 위생행정과 지역유력자 네트워크*

-1910년대 '진해위생조합' 을 중심으로-

류나래**

1. 서론
2. 진해 일본인 유력자와 '진해위생회'
3. '진해위생조합'의 활동
4. 콜레라 유행과 '진해위생조합'의 변화
- 일본인 위생단체에서 식민지 위생관리조직으로
5. 결론

1. 서론

진해는 제국일본해군(이하 해군)의 군항도시로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타 근대도시와 달리 식민지 군항도시라는 특징을 갖는다.¹⁾ 해군은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군항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진해에 제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군사적 성격과 동시에 근대계획도시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며 식민지 군항도시를 건설했다.²⁾ 계획 단계부터 해군은 진해 도시 중심부를 일본인 지구(현동: 진해 시가지)로 형성하였고, 조선인은 그 외곽에서 시가지를 지지하는 형태로 거주하게 했다.³⁾ 1910년대 이후 인구를 살펴보면 진해 시가지에서 일본인 인구수가 비교적

* 본 연구는 류나래 히로시마대학 박사논문 제3장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 히로시마대학대학원 종합과학연구과 일본근대사 전공 학술박사

1) 한반도에서 제국일본해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토지를 점령하고 도시를 개발한 예로는 진해와 영흥이 있다. 제국일본해군은 1904년 러일전쟁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거제도 송진포에 가군거지방비대를 설치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1910년에는 칙령으로 쓰시마 및 한반도 해면을 제 5해군구로 추가하고, 그 거점 군항으로 진해를 설정하였다. 진해에 군항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송진포 기지건설 과정에 대해서는 류교열, 「제국일본의 송진포 해군기지 건설 - 국제관계와 지역사회의 변동을 중심으로 - 」 『일어일문학』 제62권, 2014.를 참고로 하고 싶다.

2) 해군의 군항도시 진해 건설 방침과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柳娜俵, 「軍港都市珍海建設と日本人社会の動向—1912年上泉徳弥鎮海防備隊司令官の留任請願運動に注目して—」 『史学研究』 第303号, 2019.를 참조하였다. 러일전쟁을 통해 제국주의적 확장이라는 욕망을 드러낸 해군은 진해만에 식민지 군항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다. 따라서 1907년부터 1910년에 걸쳐, 조선 침략과 나란히 진해만에 군항도시건설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 군항도시 계획의 근간이 되는 '진해군시설지설지조사보고'가 '진해만시설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해군은 진해만을 해군용지로 수용하여 그 안에서 해군시설지역과 시가지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직접경영과 토지대여에 기반한 간접경영으로 나누어 행하고자 했다. 이는 진해군항이 진해만을 중심으로 그 연안 일대를 포함한 1,312만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토지였던 점에 기인한다. 이후 1910년대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 진해는 일본해군의 군항도시로서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3)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C08020169700, 自明治39年同至45年鎮海永興関係書類3(8)「鎮海軍港施設地実地調査報告」(防衛省防衛研究所). 이하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사료인용은 동 센터의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2회 이상 인용할 경우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와 'Ref'를 생략하고, 센터 약칭인 JACAR에 A(국립공문서관), B(외무성외교사료관), C(방위성방위연구소)로 시작하는 11자리 레퍼런스 코드를 표기하였다.

약한 증가세를 띠고 있는 것에 비해, 조선인 인구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간 점을 알 수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와 상관없이 도시가 건설된 이후 줄곧 진해 중심지역은 일본인 지구였고, 조선인의 증가는 조선인 지구였던 경화동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주위의 팽창으로 이어졌다.

해군은 도시 계획 초기부터 진해 중심지를 일본인 지구로 건설하며 위생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한인(韓人)을 일본시민과 잡거시키는 것은 위생 상 그 외에도 불가하므로 이를 격리하는 것이 지당하니 모두 덕산 방면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⁵⁾라며 진해시가지에서 조선인을 격리하였다.⁶⁾ 형식적으로나마 빈민이나 환자를 격리하는 방식이 아닌 민족 자체를 격리했다는 점에서 자국민 중심의 제국주의적 인식과 폭력적인 시스템 발현이 엿보이는 도시건설이었다.

해군 군사력과 직결되는 군항도시의 위생문제는 진해에서 이처럼 건설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해군이 직접 관리하는 군사적 차원의 것임과 동시에 일반적인 도시 사회 전체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생행정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직접 실행하는 하위기관 혹은 조직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수단 또한 필요하다.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이어졌던 일제 식민지 지배기구는 서양의학을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배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의학 체계를 재편하였다.⁷⁾ 동시에 일본인 의사를 통한 중앙의료기관 장악과 위생경찰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위생행정사무 실시가 이루어졌다.⁸⁾ ‘진해위생조합’은 이처럼 총독부의 위생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위생행정체계가 정비되고 있던 시기에 진해에서 나타난 단체였다. 군사적 공간인 동시에 일상적 공간으로서 해군과 총독부, 일본인 사회, 조선인 사회가 공존했던 진해에서 ‘진해위생조합’은 해군과 총독부, 양쪽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글은 1910년대 진해의 위생시설을 관장했던 ‘진해위생회’가 ‘진해위생조합’으로 개칭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그 구성과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총독부의 지방통치체계가 정비되는 시기로 콜레라가 유행하며 전국에서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던 때이다.⁹⁾

총독부의 위생행정에 관해서는 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중심으로 근대 의료와 검역이나 방역

4) 1911년부터 1920년까지의 진해 인구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인 인구는 1911년 3,519명에서 1913년 5,988명을 정점으로 1920년에는 진해 3,802명, 경화동 222명으로 총 4,024명에 이르렀다. 한편 조선인 인구는 경화동 인구가 따로 조사되기 전인 1911년 46명을 시작으로 1920년에는 진해 565명, 경화동 3,782명으로 총 4,347명이었다. 이러한 조선인 인구의 증가세는 1940년대까지 계속되어 1942년 인구수가 일본인 7,448명이었던 것에 비해 조선인은 21,148명이었다. (KOSIS 제공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 판)

5) JACAR : C08020169700, 自明治39年同至45年鎮海永興關係書類3 (8) 「鎮海軍港施設地実地調査報告」(防衛省防衛研究所).

6) 다케쿠니 토모야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위생상’의 문제는 ‘위생상’ 문제 그 자체보다, 직접적으로는 치안상의 문제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내선별학’ 정책에서도 보였던 것과 같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차별화하는 식민지 통치의 원리에서 온 것이었다. 竹国友康, 『朝日選書622 ある日韓歴史の旅 鎮海の桜』, 朝日新聞社, 1999, 96쪽.

7) 박윤재, 『연세국학총서 57 한국 근대 의학의 기원』, 도서출판 해안, 2005, 378쪽.

8) 같은 책.

9)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6년 조선에서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조선인 1,491명, 일본인 704명, 그 외 3명이다. 1919년 1만 명 이상의 사망자에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나 1910년대에도 콜레라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1916년의 사망자 수는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나타난 수치 중 가장 높았다 (1910년 471명, 1911년 468명, 1912년 564명, 1913년 528명, 1914년 1,032명, 1915년 1,041명, 1916년 2,189명, 1917년 1,266명, 1918년 1,317명). (KOSIS 제공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 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¹⁰⁾ 그러나 이에 비해 국내 위생회 또는 위생조합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1차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사료의 제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의 총독부 하위조직 또는 이를 지지하는 단체, 즉 총독부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 중 지역 단위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습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탓으로도 볼 수 있다.¹¹⁾ 또한 국내 위생조합이 일본인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위생조합 연구는 재조 일본인 연구와 의학사¹²⁾ 및 행정사 등 다양한 영역의 근대사 연구 축적 위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나타난 박윤재의 연구에서는 1907년 설립된 한성위생회에 관하여 1910년대 피병원 설립 등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동 단체가 식민 지배에서 갖는 의미를 논하였다.¹³⁾ 이를 통해 한성위생회가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 식민자들의 건강 보호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일제의 식민 정복과 지배를 안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기관임을 밝히고 있다.¹⁴⁾ 이처럼 식민 지배를 위한 행정체계가 정비되던 1910년대, 한성위생회는 수도 서울 지역의 전반적 위생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성위생회 활동에 대한 검토는 위생이 일제권력으로서 조선을 통제하고 ‘훈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⁵⁾

그 외에 마쓰모토 다케노리와 정승진의 연구에서는 호남 지역 위생·의료 문제를 중심으로 일제 ‘위생규율’의 침투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 중 위생조합에 대해 주목하였다.¹⁶⁾ 이 연구에서는 일본인이 주도한 위생조합이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식민지 지역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하고¹⁷⁾, 전라북도 두 개 사례를 통해 일제 ‘위생규율’의 지방침투 과정에서 학교조합 및 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리에서 일본인 중심의 학교조합이나 변영조합과 같은 자치조직을 통해 위생·의료서비스가 개시되고, 1910년대 중반에는 신설된 위생조합으로 위생 업무를 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1930년대 전주 사례에서는 위생조합이 일본식 자치조직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위생조합연합회를 통해 경찰서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위계적 구조를 밝힘으로써, 식민지기

10) 김정란, 「근대 해항도시 부산에서의 콜레라 유행과 그 대응 -일본인거류지 운영과 상수도 설비과정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4, 2011; 백선례, 「1919·20년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방역활동 -방역당국과 조선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01호, 2011; 정민재, 「일제강점기 順化院의 설립과 운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 2011;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정책(1910-1945): 소극적 규제와 시작된 대응과 한계」 『의사학』 제22권 3호, 2013; 신규환 「海港檢疫과 東아시아: 1919-20년 臺灣과 朝鮮의 콜레라 防疫」 『중국사연구』 제124호, 2020. 등을 참고로 하고 싶다.

11) 국내에서 지역사는 200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용기,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람사학』, 2015, 1쪽). 특히 지역의 재조일본인 연구는 인천, 군산, 부산, 목포 등 개항장과 거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식민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규수, 『제국과 식민지 사이 - 경계인으로서의 재조일본인 -』, 도서출판 어문학사, 2018, 30쪽).

12) 의학사와 의사학의 용어에 관한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규환 「동아시아의학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의사학』 제19권 제1호, 2010.; 김영수 「일본 의학사의 연구동향과 전망: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확대」 『의사학』 제29권 제2호, 2020.을 참고로 하고 싶다.

13) 박윤재, 「韓末·日帝 初 漢城衛生會의 活動과 植民 支配」 『서울학연구』 22, 2004.

14) 같은 논문, 86쪽.

15) 같은 논문, 86~87쪽.

16) 마쓰모토 다케노리, 정승진, 「호남 지역의 위생·의료문제: 일제 ‘위생규율’의 식민지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와 한계」 『의사학』 제27권 제3호, 2018.

17) 마쓰모토 다케노리와 정승진에 따르면 두 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개항장 주변의 일본 거류민단이 합방 이후, 학교조합으로 개편되면서 그 하부 조직으로서 위생조합이 탄생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조합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官)의 지도·감독 하에 주민 ‘자치기구’ 형태로 위생조합이 설치·운영된 경우이다 (앞의 논문, 372쪽).

위생행정의 구체적 형태와 식민 지배체제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한편, 일본에서 위생조합에 관한 연구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시라기자와 료코(白木澤涼子)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①관직적 단속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거기에서부터 지역적인 차별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 ②명망가 지배의 보완물로 보는 것, ③지방제도와와의 관련성에서 해석하는 것 등이 있다.¹⁸⁾ 그중에서도 특히 오자키 코지(尾崎耕司)의 연구에서는 일본 근세부터 긴 호흡으로 위생조합의 변화를 검토하고, 지방제도의 문제점이 현저해지자 그 지방 제도 아래 공공의 역할을 지고 주민을 망라하여 조직된 위생조합과 같은 주민단체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오자키의 연구는 위생조합에 주목하여 도시자치와 도시행정의 모습을 고찰한 것으로, 위생조합 연구가 지역사회에 대한 규명 일 뿐만 아니라 근대 국가의 규명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위 논점들을 상기할 때,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이어지는 과정 중 지방통치체계 보조수단으로 조선에서 등장한 위생조합은 먼저 일본위생조합 경험을 토대로 식민지에서 그 시스템이 개량 혹은 재생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내 위생조합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 위생행정과 지배체제를 밝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회 특성을 규명하고 총체적으로 식민지기를 고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⁰⁾

여기에서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의 지역사회를 보는 도구로서 ‘진해위생조합’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군의 도시 건설 과정과 그 시가지 건축 등에 주목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진해 시가지의 외형적 변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²¹⁾ 그러나 이에 비하여 그 내부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²²⁾ 진해가 일본인 사회였던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군 군사 시설지(군항시설지) 및 주변부의 조선인 지역으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때,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의 규명에는 각각의 개별적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인 사회였던 진해 시가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 유력단체들의 움직임을 검토하고자 한다.²³⁾ 그중에서도 위생이라는 목적을 갖고 등장했던

18) 白木澤涼子, 「衛生組合連合会と市制」『日本歴史』第809号, 2015, 53쪽.

19) 尾崎耕司, 「衛生組合に関する考察: 神戸市の場合を事例として」『大手前大学人文科学部論集』第6巻, 2005.

20) 이 글에서는 일본-대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식민지 위생행정 시스템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기에 앞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진해라는 특정 지역의 위생조합에 대해 논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21) 우선 손정목의 『韓国開港期都市社会經濟史研究』(一志社, 1982)가 있다. 그 외에도 黃正德의 『鎮海市史』(鎮海郷土文化研究所, 1987), 竹国友康의 『ある日韓歴史の旅: 鎮海の桜』(朝日新聞社, 1999年), 허정도의 「일제에 의한 진해신도시계획의 식민성 고찰」『人文論叢』28권 (2011), 橋谷弘의 「要港部都市・植民地都市としての鎮海」(坂根嘉弘編『軍港都市史研究VI 要港部編』清文堂, 2016)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군항 건설계획에 따른 발전 양상을 중심으로, 진해의 도시적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지역사 연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나타난 진해 생활상을 규명하고자 한 김선희의 연구 「일제 강점기 진해 지역 일본인의 생활상」(창원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10)가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대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특히 1930년대 이후에 주목하여 진해 조선인 지역에 일본인도 거주한 점을 나타내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류가 많았던 점을 생활상 특징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었으며, 중심시가지에 있던 일본인 지역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진해 전체 양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해군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도시건설 초기 1910년대와 총독부의 지방통치체계 속에 진해지역이 행정적으로 완전하게 자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1920년대의 진해 지역사회 양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3) 이러한 진해 일본인 사회에 대한 주목하는 일은 장차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조선인 사회와 군사시설지에 관한 검토를 전개하여 식민지 군

‘진해위생조합’에 주목하는 일은 해군의 식민지 군항도시로 출발한 진해가 총독부 지방통치체계 안에서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진해위생조합’을 중심으로 식민지 지방 위생행정 통치체계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군항도시의 지역사회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군항도시 위생관리를 제국주의적 관리체계 형성과정이라는 글로벌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진해위생조합’이 지역단체이자 총독부 하위조직으로서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던 점에 주목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연구시기는 1910년대로 한정함으로써 진해 시가지 일본인 위생 단체에서 1910년대 후반에 주변부였던 조선인 지역까지 포함한 진해 전체의 위생을 관리하는 단체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진해 시가지에서 나타난 ‘진해위생조합’의 양상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1910년대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에서 나타난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해 일본인 유력자와 ‘진해위생회’

1910년대 진해시가지에는 신도시 건설과 함께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며 다양한 목적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진해학교조합’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인 자녀의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 단체로 설립된 이후 시가지 제반의 공공사업까지 관여하고 있던 단체였다.²⁴⁾ 이뿐만 아니라 실업발전 목적을 가진 ‘진해번영회’가 또 다른 일본인 유력자 단체로서 존재했다.²⁵⁾ 거기에 위생시설 관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해위생회’가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한 사료 중 ‘진해위생회’ 이름을 볼 수 있었던 가장 빠른 기록은 1915년 1월 16일 『부산일보』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사에는 당시 ‘진해학교조합’ 위원이었던 오쓰보가 ‘진해위생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맡고 있던 모든 공직의 사직을 고민하고 있던 점에 대해 쓰여 있다.²⁶⁾ 이를 통해 1915년에 1월에는 ‘진해위생회’가 회장과 부회장이 있는 형태의 단체로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1912년에 지역 홍보 목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보이는 『진해』를 살펴보자.²⁷⁾ 『진해』에는 시가지 발전에 대한 예측부터 해당 지역 유력자 소개, 1912년 7월 시점의 병원, 요리점, 목재상, 여관, 상점 등 광고와 함께 진해 지세, 위생, 교육, 종교, 산업, 상업, 인구 등의 정보가 실려있다.²⁸⁾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아직 ‘진해위생회’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²⁹⁾ 오히려 이 시기 위생에 관해서는 ‘진해학교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

항도시 진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점차 시간축을 1945년까지 넓혀갈 것이다.

24) ‘진해학교조합’은 1911년 진해의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후 해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시가지와 산림 등의 토지를 전대하며 진해 시가지에서 실질적 경영 주체로 활동하였다. ‘진해학교조합’에 관해서는 류나래,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의 ‘진해학교조합’과 시가지 경영」 『도시연구: 사회·문화·역사』 제24호, 2020. 을 참조하였다.

25) ‘진해번영회’는 1912년 진해방비대사령관 가미이즈미 도쿠야의 전임으로 인해 시가지에서 그 유임청원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지역의 실업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鎮海の市民大会 (7月12日鎮海支局)』 『朝鮮新聞』, 1912.7.17.). ‘진해번영회’는 1917년 해산까지 일본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진해번영회에 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26) 「大坪元老の辭職說」, 『釜山日報』, 1915.1.16.

27) 杉山萬太, 『鎮海』, 鎮海印刷社, 1912.

28) 같은 책. ‘성공하는 식민지’, ‘세계 제일의 군항’ 등의 절(節)이 있는 점으로부터 지역 광고·홍보의 목적을 갖고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책, 55~57쪽)

다.³⁰⁾ 이러한 점을 볼 때, ‘진해위생회’는 1912년 말부터 1914년 사이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쓰모토와 정승진이 논한 이리위생조합의 예와 같이 ‘진해위생회’도 ‘진해학교조합’과 같은 지역 일본인 자치조직에서 위생 업무가 분리된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³¹⁾ 특히 1914년 학교조합 개정령을 통해 학교조합의 부대사업 관리에서 ‘위생사무 처리’ 부분이 삭제되며, 신설된 학교조합은 교육목적을 위한 사무처리로 그 권한이 한정되었다.³²⁾ 이는 거류민단과 흡사하게 일본인 자치단체로 다양한 사업을 도맡았던 학교조합이 총독부의 식민지 관리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일본인 교육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한 하부조직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당시 ‘진해학교조합’에서도 그러한 흐름에 따라 위생을 목적으로 한 ‘진해위생회’ 설립을 전개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1915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부산일보』 기사를 토대로 1915년 상반기 ‘진해위생회’를 대강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마쓰오 시게노부(松尾重信)와 오쓰보 겐우에몬(大坪善右衛門)이 있었으며³³⁾, 주석서기로 와타리 추조(渡利忠三)가 있었다.³⁴⁾ 간사로는 타마가와 겐키치(玉川謙吉)와 마쓰다 다이조(増田大藏)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의원이 최소 6인 이상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³⁵⁾ 그 외 9인의 위생구장이 있었던 점도 확인할 수 있다.³⁶⁾ 간사가 평의원 중에서 뽑혔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8인에서 20인 이상의 인원으로 ‘진해위생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15인을 진해 일본인 유력자 단체였던 ‘진해학교조합’ 구성원과 대조해보면 회장, 부회장, 위생구장 8인을 포함한 10인의 이름을 ‘진해학교조합’에서 찾을 수 있었다.³⁷⁾

이러한 점은 ‘진해위생회’의 설립 주체가 어디 혹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단체 구성에는 ‘진해학교조합’에 기초한 진해 일본인 유력자 네트워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1916년 4월 ‘진해위생회’가 ‘진해위생조합’으로 개칭한 직후, ‘진해학교조합’이 약 3천 엔을 투자하여 건설한 진해전염병사를 무상으로 빌리게 된 점 역시 두 단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나타내고 있다.³⁸⁾

3. ‘진해위생조합’의 활동

‘진해위생회’는 1916년에 단체명을 ‘진해위생조합’으로 개칭했다.³⁹⁾ 여기에서는 그 개칭 시

29) 같은 책.

30) 같은 책, 16~17쪽.

31) 마쓰모토 다케노리, 정승진, 앞의 논문, 373~374쪽.

32) 류나래, 앞의 논문, 46~47쪽.

33) 「衛生会」, 『釜山日報』, 1915.3.13; 「衛生会」, 『釜山日報』, 1915.3.30.

34) 「鎮海吏員淘汰問題」, 『釜山日報』, 1915.5.12.

35) 「衛生会」, 『釜山日報』, 1915.4.13. 이 기사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평의원은 大原愛始 1인이다.

36) 「衛生会」, 『釜山日報』, 1915.4.13. 9인의 위생구장은 다음과 같다. 音成定, 上田末太郎, 光成久吉, 大本宇市, 野崎常藏, 村上西郎, 九鬼長橘, 駒田彦之丞, 西川大郎一.

37) ‘진해학교조합’ 관리자와 평의원 명부는 도천초등학교編 『도천초등학교실록 : 1911-2015 : 개교제70주년 기념』, 도천초등학교, 2016.에서 참조하였다. ‘진해학교조합’ 명부에서 확인한 10인은 다음과 같다. 松尾重信, 大坪善右衛門, 上田末太郎, 光成久吉, 大本宇市, 野崎常藏, 村上西郎, 九鬼長橘, 駒田彦之丞, 西川大郎一.

38) 「鎮海伝染病舎譲渡」, 『釜山日報』, 1916.4.11.

기를 전후한 동 단체의 활동을 검토하고, 그 성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915년 3월, '진해위생회'는 진해경찰서에서 임원회(役員會)를 열었다.⁴⁰⁾ 출석자는 회장 마쓰오 시게노부, 부회장 오쓰보 젠우에몬, 간사 다마가와 겐키치와 마쓰다 다이조, 경찰서장 안도 쇼지로⁴¹⁾(安藤正次郎), '진해학교조합' 관리자였던 마에다 에이키치(前田栄吉)였다.⁴²⁾ 같은 달 19일에도 임원회가 열렸고,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평의원회도 열렸다.⁴³⁾ 평의원회에서는 수지 예산을 심의하여 1914년보다 137엔 감소한 금액인 3,214엔으로 정했다.⁴⁴⁾

1915년은 총독부 경무총감부 산하에 위생행정부서를 두게 된, 이른바 '위생경찰'이라는 통제중심적 행정체계가 정비된 후이다.⁴⁵⁾ 이때 진해에서도 경찰서가 위생행정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해위생회'는 이 총독부 위생행정체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진해학교조합'이 시가지에서 민간단체로서 비교적 진해 일본인 사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총독부나 해군에게 그 뜻을 전하고 있던 것과 다른 점이다.⁴⁶⁾

'진해위생회'는 1915년에 4인의 고문을 두고 있었으며 그중 1인은 당시 진해방비대 군의장이었던 구로이와 겐조(黒岩賢三)였다.⁴⁷⁾ 이 점으로부터 '진해위생회'가 총독부 하의 경찰뿐만이 아닌 해군과도 관련되어 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총독부 행정체계 안에서 위생행정을 위한 보조적인 단체이면서도 해군과도 관련이 있던 점은, 군항도시로서 해군함대 입항과 그에 동반되는 수병 상륙이 빈번했던 진해시가지 특성에 기인한 점으로 보인다.

같은 해 7월 17일에 열린 위생강화대회에서는 이러한 '진해위생회'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 7월 21일의 「진해위생강화대회」라는 기사에서는 대회 당일 상황과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알리고 있다.⁴⁸⁾ 기사에 따르면 '진해위생회'가 주최한 위생강화대회는 1915년 7월 17일 오후 8시 넘어서부터 11시까지 오쓰보 젠우에몬이 경영하던 진해좌(鎮海座)에서 열렸다. 이때,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안도 경찰서장과 구로이와 방비대군의장, 오노 경찰의(警察醫) 3인이었다.⁴⁹⁾

39) 「鎮海だより」, 『釜山日報』, 1916.4.5.

40) 「衛生会役員會」, 『釜山日報』, 1915.3.13.

41) 安藤正次郎는 1912년 4월 24일에 진해경찰서장으로 임명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제502호 4면, 1912.5.2.).

42) 「衛生会役員會」, 『釜山日報』, 1915.3.13.

43) 「衛生会の予算」, 『釜山日報』, 1915.3.21.

44) 「衛生会の予算」, 『釜山日報』, 1915.3.21.

45) 박윤재, 『연세국학총서57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도서출판 혜안, 2005, 330-334쪽. 박윤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초기까지의 조선 위생사무 일원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제는 조선 지배를 위해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제도로는 헌병경찰제도를 취했다. 이는 헌병을 중심으로 경찰기구를 재편하여, 경무총감부를 정점으로 지방행정기구와 별도의 통로에 따른 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위생사무의 실질적인 실행과 제관련사업이 경찰의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1912년 4월에는 개항 검역과 이출우 검역도 경무총감부 관할이 되어, 경찰관서는 경찰사무 및 위생사무도 담당하게 되어 처음으로 위생행정사무가 통일되었다. 상세한 조선 위생경찰제도의 확립과정은 같은 책의 제4장 제4절을 참고로 하고 싶다.

46) '진해학교조합'은 1911년 진해방비대사령관 가미이즈미 토쿠야의 유임을 청원하기 위해 시민운동을 벌여 직접 해군성과 총독부에 청원을 하는 등 진해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단체였다. (柳娜倅, 「植民地軍港都市鎮海建設と日本人社会の動向—1911年上泉徳弥鎮海防備隊司令官の留任誓願運動に注目して—」 『史学研究』 第303号, 2019年. 힘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1911년의 '진해학교조합'이 이 지역사회 의견이 총독부나 해군으로 향하는 것을 돕는 단체였다면, 1915년 '진해위생회'는 총독부나 해군의 뜻이 지역사회로 향하는 과정을 돕는 단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7) 「衛生会」, 『釜山日報』, 1915.4.13.

48) 「鎮海衛生講話大会」, 『釜山日報』, 1915.7.21.

49) 「鎮海衛生講話大会」, 『釜山日報』, 1915.7.21.

3인의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자리에서 안도 경찰서장은 진해와 같은 군항도시의 위생상태는 제국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지적하며 그 위생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진해 주민들⁵⁰⁾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물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요코하마와 나가사키의 사례를 들며 논하였다. 다음 구로이와는 선상 생활은 육상과 다르고, 함선 내에 전염병이 침입했을 경우 해군의 사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수도물 사용과 전염병 감소의 관계를 설명한 후, 함대 상륙항인 진해의 위생관리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시가지의 수도물 사용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생상황은 단순히 해군 또는 시가지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시가지 전체의 행복과도 연결됨 또한 강조하였다. 오노 경찰의는 수도물과 우물물을 비교하는 분석시험을 그 자리에서 실연하여 보여주었다.⁵¹⁾

이 대회에서는 위 담화자 3인이 수도물 사용을 장려하고 있었다. 1915년 7월은 또 다른 진해 일본인 유력자 단체였던 ‘진해번영회’에서 수도요금 인하운동을 했던 시기이기도 했다.⁵²⁾ 당시 진해 주민 측은 고액의 수도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데 비해, 경찰과 해군에서는 상기의 이유로 인해 수도사용을 주민 측에게 촉구하고 있었다. 이때 ‘진해위생회’는 위생강화대회를 주최하여 경찰과 해군의 입장이나 생각을 진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찰의 위생행정에 협력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진해위생회’는 해군과도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8월 11일의 기사에 따르면 제2함대 스오(周防)함의 승조원이었던 1등 간호수 나카이 히로시(中井弘)는 진해에 상륙하여 ‘진해위생회’ 시라이(白井) 서기와 회담을 가졌다.⁵³⁾ 이때 나카이는 진해 시가지의 위생상태와 ‘진해위생회’ 사업경영에 관해 조사한 후, ‘진해위생회’의 노력으로 그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며 약간의 경비를 기증했다.⁵⁴⁾

이 기사는 ‘진해위생회’와 해군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해위생회’가 시가지 위생행정과 그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점은 ‘진해학교조합’에서 기본적으로 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필요에 따라 총독부와 해군 측에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명확하게 다른 점이다.

이러한 ‘진해위생회’는 1916년 4월에 이르러 ‘진해위생조합’으로 개칭하였다. 다음 기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진해에는 종래 위생회가 있어서 시 위생시설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규에 따라 진해위생조합으로 고치고 미리 알린 것과 같이 31일 오후 1시부터 진해경찰서 누상에서 평의원회를 열어, 조합규약 및 1916년도(원문: 5년도) 세입출예산을 부의하였다. 당 규약은 37조로 이루어져, 예산은 세입출

50) 본 글에서 진해 주민은 신문 등의 사료에서 ‘진해시민’ 또는 ‘주민’, ‘진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諸君)’ 등으로 언급된 것으로, 당시 진해 시가지가 일본인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로 시가지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변부에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는 점과 거주라는 측면에서는 민족별로 격리되었으나 사람과 물자의 이동과 교류 등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 지면에서 진해시가지와 진해를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진해 일본인으로 명명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명확하게 진해 일본인이라고 지칭하기 어려운 경우, 본 글에서는 진해 주민으로 표현하였다.

51) 「鎮海衛生講話大会」, 『釜山日報』, 1915.7.21.

52) 「鎮海の給水料-値下運動の開始」, 『釜山日報』, 1915.7.4.

53) 「海軍看護手の美挙」, 『釜山日報』, 1915.8.11.

54) 「海軍看護手の美挙」, 『釜山日報』, 1915.8.11.

55) 「鎮海だより」, 『釜山日報』, 1916.4.5.

함께 2,133엔이다. 동 조합에는 조합장 1인, 부조합장 1인, 조합구장 10인을 두고, 조합회장으로는 마쓰오 시게노부 씨, 부조합장에는 오쓰보 겐우에몬 씨가 당선되었다. 조합구장은 조합장이 지난번에 선거한 정충대에게 이를 촉탁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야마다 시게미(山田茂實), 기타기시 사다오(北岸貞雄), 우에다 스미타로(上田末太郎), 미쓰나리 히사키치(光成久吉), 무라카미 시로(村上四郎), 노자키 쓰네조(野崎常蔵), 오모토 우이치(大本宇市), 엔도 다모쓰(遠藤保), 구니야스 료헤이(国安良平), 모토키 아사오(元木浅夫) 10인을 촉탁하였다. 또한 평의원에 촉탁된 것은 야마다 시게토요(山田茂豊), 노무라 기요토(野村清人), 쓰다 순지(津田俊二), 히사토미 데쓰이치(久富鉄一), 마쓰다 다이조(増田大蔵), 시부타니 세이(渋谷精), 오하라 아이시(大原愛始), 반노보루(伴昇), 모토키 아사오(元木浅夫), 도리고에 엔지로(鳥越圓次郎)의 10인이다.⁵⁶⁾

여기에서는 먼저 위생조합으로의 개칭이 법규에 따른 것임을 전하고 있다. 이 법규는 1915년 9월 22일의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5호’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에 따라, 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한 위생조합 설치와 그 설치지역이 고시되었다. 그 지역 중 하나로 진해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전부터 진해시가지에 존재했던 ‘진해위생회’를 ‘진해위생조합’으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신문기사로 돌아가서 1916년 ‘진해위생조합’의 구성원을 살펴보자. 무엇보다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 마쓰오와 오쓰보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2인은 1915년 ‘진해위생회’ 회장과 부회장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조합구장 10인 중에서 기타기시 사다오, 미쓰나리 히사키치, 무라카미 시로, 노자키 쓰네조, 오모토 우이치 5인은 1915년 ‘진해번영회’ 평의원이기도 했다.⁵⁸⁾ 평의원 10인 중에서는 마쓰다 다이조, 시부타니 세이, 오하라 아이시 3인이 똑같이 ‘진해번영회’의 평의원을 맡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 21명 중에 ‘진해학교조합’ 평의원 또는 관리자를 맡고 있었던 인물은 13명에 달한다.⁵⁹⁾

1916년 ‘진해위생조합’은 총독부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에 따라 단체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던 단체였다. 이 점은 ‘진해위생조합’이 조선에서 경찰 중심의 위생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단체로서 진해에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 구성원은 진해시가지 유력자들로 ‘진해학교조합’과 ‘진해번영회’에서 시가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즉, 진해시가지 유력자들은 1916년에는 민간단체뿐만이 아닌 총독부 산하의 단체에도 들어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상황에 따라 민간의 사적 입장에 서거나, 또는 총독부 계통의 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에도 들어가 있던 것이다.

56) 「鎮海だより」, 『釜山日報』, 1916.4.5.

57) 『朝鮮總督府官報』 第942号, 1915.9.22, 33쪽.

58) 「鎮海繁栄会大会」, 『釜山日報』 1915.4.27. 이 기사에서는 ‘진해번영회’의 개선이 이루어진 점과 당선된 인물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59) 모토키 아사오(元木浅夫)는 조합구장과 평의원 양쪽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총인수는 21인이다. ‘진해학교조합’ 소속으로 확인되는 13인은 다음과 같다. 松尾重信, 大坪善右衛門, 上田末太郎, 光成久吉, 村上四郎, 野崎常蔵, 大本宇市, 遠藤保, 国安良平, 久富鉄一, 大原愛始, 伴昇, 元木浅夫. ‘진해학교조합’ 평의원 명부는 도천초등학교 編 『도천초등학교실록 : 1911-2015 : 개교제70주년 기념』, 도천초등학교, 2016.에서 참조하였다.

4. 콜레라 유행과 ‘진해위생조합’의 변화 -일본인 위생단체에서 식민지 위생관리조직으로

1916년 9월 진해에서는 콜레라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산 일보』 1916년 9월 7일 기사에서 엿보이는 상황을 보면, 쓰시마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자 진해에서도 “진해는 동지(對州)와의 와선 교통이 빈번하므로 결코 방심해선 안 되고 매우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⁶⁰⁾ 그리고 쓰시마에서 온 배에 대해서는 5일간 정박하게 하여, 그 사이 승조원의 상륙과 화물 하선 등은 허가하지 않는 “엄중한 검역”을 행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⁶¹⁾ 이뿐만 아니라 진해 시내 한 구역에서는 티푸스가 발생하여 “피병사에 수용한 동 환자 10여 명을 넘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진해위생조합’은 “방역을 위해서 임시 위생시설에 필요한 경비 또한 매우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예산 추가를 협의하기 시작하였다.⁶²⁾

이때 협의 내용을 보면 1916년 위생비 예산은 2,133엔이었으나, 전염병 방역을 위해 임시로 945엔의 추가 예산을 의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⁶³⁾ 이 예산 추가는 진해 주민에게는 위생비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 다음 달인 10월부터 6개월간은 위생비가 배가 되었다.⁶⁴⁾ 당시 신문에서는 “전염병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단지 환자 집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 발생으로 인해 일반에게 손해를 미친다. 그러므로 각자 위생을 중요시하는 일은 자기방어를 위함뿐만이 아니라 공덕을 중요히 하려는 감념(感念)이 가장 근본적인 의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⁶⁵⁾ 물론 위생비 증가와 관련하여 시가지 주민을 납득시키려는 것이지만, 공중위생의 관념이 전염병 대응을 통해 시민들에게 강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협의에서 제안된 예산금액은 “당지에 티푸스도 만연할 징조가 없다. 종식에 가까워졌고, 콜레라도 빈틈없는 방역준비로 아마도 습래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555엔으로 결정되었다.⁶⁶⁾ 이처럼 ‘진해위생조합’에서는 시가지 상황에 맞춰 예산을 협의하고, 이를 진해 주민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한편 ‘진해위생조합’의 예산 협의 후인 같은 달 22일자 「방역경계엄중」이라는 기사에서는 이 시기 콜레라 유행에 대하여 진해경찰서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⁶⁷⁾ “부산 · 진주 · 삼천포의 각지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점에 있어, 건너편에 쓰시마가 있는 진해는 마침 콜레라 발생지에 포위된 모양이므로, 매우 위험하고, 경계를 한층 더 엄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며, 제등만 · 행엄만 · 비봉의 각 잔교에서 소독품을 준비하여 상륙객은 “반드시” 족부 소독을 하게 하고 있었다.⁶⁸⁾ 경찰은 또한 식료품 공급지였던 부산에서의 매입을 피하고 적당한 대체지를 찾는 것이 방역 상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진해위생조합’에 그 내용을

60) 「鎮海たより」, 『釜山日報』, 1916.9.7.

61) 「鎮海たより」, 『釜山日報』, 1916.9.7.

62) 「鎮海たより」, 『釜山日報』, 1916.9.7.

63) 「鎮海たより」, 『釜山日報』, 1916.9.7.

64) 「鎮海たより」, 『釜山日報』, 1916.9.7.

65) 「鎮海たより」, 『釜山日報』, 1916.9.7.

66) 「鎮海通信」, 『釜山日報』, 1916.9.18.

67) 「防疫警戒嚴重」, 『釜山日報』, 1916.9.22.

68) 「防疫警戒嚴重」, 『釜山日報』, 1916.9.22. 실제 콜레라 예방에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소독 등의 대응책을 통해 전염병에 대처하고자 방역 활동을 한 것은 알 수 있다.

전달하고, ‘진해위생조합’이 다시 각 상점에 통지하고 있었다.⁶⁹⁾

이처럼 콜레라 유행상황에 대해서는 1916년 10월 4일 기사에서도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⁰⁾ 이 기사에서는 비봉 앞 모도(毛島)에 거주하는 어부가 10월 2일에 발병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했음을 알리고 있다. 부산에서도 일본인 어부 1명, 행암리와 풍조리의 조선인이 1명씩 10월 1일에 발병하여 모두 콜레라로 진단되어 피병사에 수용하였으나, 조선인 1명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발병지는 진해시가지가 아닌 해안 지역인 점을 들면서 “진해시가는 다행히도 오늘까지 콜레라의 침입을 면하고 있어도, 면내 각소에서 동 환자 발생하여 시가가 포위 상태가 되면 위험천만하게 된다. 시민은 각자 섭생에 한층 더 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하였다.⁷¹⁾

그리고 같은 달 10일의 『부산일보』에서는 콜레라 유행으로 어류 수요가 감소하여 어선 입항도 줄어든 결과, 진해수신시장 매상이 1,945원으로 월평균 반액 정도였음을 알리고 있다.⁷²⁾ 이러한 상황에서 「콜레라는 종식인가」라는 기사는 안도 진해경찰서장이 면내의 각 동리에 출장을 다니며, 각 리에 자위단을 조직하고 각 동리의 왕래자에게는 각 동리마다 족부소독을 한 후 출입할 것, 생수를 금지하고 끓인 물을 사용할 것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리고 있다.⁷³⁾ 이 기사의 끝부분에는 최근 2~3일은 새로운 환자 발생이 없고, 기후도 점차 냉기가 느껴지게 되면 빠르게 종식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⁷⁴⁾

이윽고 같은 달 10월 25일의 신문기사에서는 진해에서 콜레라가 종식할 조짐이 엿보인다.⁷⁵⁾

진해면 내 콜레라는 14일 비봉 조선인 부락에 1명의 신환자가 있었던 이래로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로써 종식이 될 것이다. 현재 피병사에는 3명의 콜레라 환자와 2명의 보균자와 3명의 티푸스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콜레라 환자 중 1명은 다음 21일 전치 퇴원할 것이다. 처음 발병 이래 면내의 콜레라 환자 수 24명 중, 사망 13명 전치 8명이다.⁷⁶⁾

이 기사에서는 진해면 비봉에 1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 이래 환자 수가 늘고 있지 않으므로, 콜레라의 종식을 향해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진해에 콜레라 환자가 피병사에 격리된 것, 총 24명의 환자 중 사망자가 13명, 전치자가 8명이었던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조선인 부락에 1명의 신환자가 있어”라는 부분이다. 일본인 시가지 주변에 있던 조선인 마을에서 나타난 전염병 발생은 ‘진해위생조합’에 있어 조선인 지역 위생관리 필요성을 환기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31일의 두 개 기사에서는 ‘진해위생조합’의 이러한 생각을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소개한다.

진해위생조합에서 피병사 증축을 위해 본년도 예산 350원을 추가하여 일시 차입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건 및 조합규약 중 조합비를 시외 거주의 조선인에게도 부담시키도록 개정하는 건은 인가 신청 중이던

69) 「防疫警戒嚴重」, 『釜山日報』, 1916.9.22.

70) 「虎列患者続々発生」, 『釜山日報』, 1916.10.4.

71) 「虎列患者続々発生」, 『釜山日報』, 1916.10.4.

72) 「九月中の水産市場」, 『釜山日報』, 1916.10.10.

73) 「虎疫は終息か」, 『釜山日報』, 1916.10.10.

74) 「虎疫は終息か」, 『釜山日報』, 1916.10.10.

75) 「虎疫発生せず」, 『釜山日報』, 1916.10.25.

76) 「虎疫発生せず」, 『釜山日報』, 1916.10.25.

것으로 최근 경무부에서 전부 인가 지령이 있었다.⁷⁷⁾

우선 이 기사에서는 ‘진해위생조합’이 피병사 증축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외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도 조합비를 부과하기 위해, 조합규약의 개정을 신청하여 전부 인가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으로부터 이때까지 시가지 주변부 조선인에게는 위생조합비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같은 날의 다른 기사이다.

진해위생조합에서는 별항과 같이 시의 조선인에게 □□합비를 부담하기로 된 것에 대해서 조선인 부락을 10구로 나누어, 각 구에 조선인 구장을 두고, 종래 위생구장 일본인 10명에 더하여 20명으로 하여, 동 평의원도 종래 10명이던 것을 13명으로 하고 그중 4명은 조선인을 추천하기로 하였다.⁷⁸⁾

‘진해위생조합’은 조선인에게도 조합비를 부담시키기로 하면서, 시외지역에 있는 조선인지구를 위생관리를 위해 10구로 나누어 각 구에 조선인 구장을 두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평의원도 기존 일본인 10명에 새롭게 조선인 3명을 더하여 총 13명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 진해시까지 유력단체였던 ‘진해학교조합’과 ‘진해번영회’가 전원 일본인 단체였던 것과 다른 점이다. 기본적으로 ‘진해학교조합’은 일본인 교육 목적을 위한 단체였고, ‘진해번영회’는 실업발전 목적의 일본인 단체였다. 따라서 이는 콜레라의 발생으로 시가지 주변의 조선인 사회 위생상황이 일본인 지역의 위생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비로소 처음으로 그 사회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기사로부터 약 두 달 후인 같은 해 12월 7일 『부산일보』에서는 새롭게 더해진 ‘진해위생조합’ 조선인 측 평의원과 위생구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이상과 같이 진해 유력자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관된 ‘진해위생조합’은 총독부 측에 보다 협조적이고 친화적인 성격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점은 총독부의 경찰 중심 위생행정 체계에 기인한 현상으로, 행정조직의 역할을 지역의 ‘진해위생조합’이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가지 위생 문제가 해군의 건강과 사기로 이어지는 군항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해군과의 상호협력적인 자세도 확인할 수 있다.

진해에는 일본인 시가지 건설과 함께 ‘진해학교조합’이 만들어져 일본인 교육을 비롯한 위생, 토목, 건축 등 시가지 행정 전체에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의 지방행정체계가 점차 갖추어짐에 따라 학교조합은 기본적으로 교육사업만 관여하는 단체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위생에 관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하면서 위생조합을 설치하여, 위생행정의 보조적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해학교조합’의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일본인 유력자들이 ‘진해위생조합’에도 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지역 유력자 네트워크가 총독부 중심의 행정체제로 흡수되어가는 과정 혹은 그 유착의 전조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진해위생조합’은 1916년 콜레라 유행으로 인해 시가지 주변부 조선인 지역도 관리영역으로 인식하여 단체 구성원에 포함하였으나,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일본인 지역 위생을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77) 「衛生組合追加予算認可」, 『釜山日報』, 1916.10.31.

78) 「衛生區長増員」, 『釜山日報』, 1916.10.31. □□는 사료의 원문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문맥을 고려하면 동조(同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79) 「衛生組合役人認可」, 『釜山日報』, 1916.12.7. 조선인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魚鄭愚, 孫大權, 朱容翼. 조선인 조합구장은 다음과 같다. 李東儀(비봉리), 消祐社·具子源(경화동), 裴考憲(석리), 金時煥(이동리), 金宜澤(덕산리), 金並操(풍호리), 魚在瓊(자덕리), 李集薯(특전리), 鄭禧諒(행암리).

5. 결론

제국일본해군의 군항도시로 건설된 진해 시가지는 일본인 지역으로서 만들어졌으며, 이 시가지에는 ‘진해학교조합’을 시작으로 교육, 위생과 같은 공공사업을 도맡는 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해위생조합’은 전신인 ‘진해위생회’가 1916년에 개칭한 단체로, 시가지 위생시설을 관장하고 있었다. ‘진해위생회’의 출현은 정확하진 않으나 1912년 말에서 1914년 사이로 추정된다. ‘진해위생조합’은 진해 일본인 지역 위생관리에 힘을 쓰고 있었으며, ‘진해위생회’ 때부터 경찰의 위생정책을 보조하는 성격을 보였다. 한편, 군항도시라는 진해의 특성으로 인해 해군 측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진해위생회’는 경찰과 해군이 시가지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도사용을 촉구하자, 그 강화대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진해위생회’가 단순히 민간자치단체가 아닌 식민지 지방행정에서 위생관리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단체임을 시사한다. ‘진해위생조합’으로 개칭한 이후에는 이처럼 총독부와 해군 양쪽에 협력적인 성격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1916년 9월 유행했던 콜레라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거주지역이 위생상 위기를 맞게 되자, 그때까지 마주하지 않았던 조선인 지역 또한 관리구역으로서 포함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1910년대 진해 시가지의 다른 유력자 조직이었던 ‘진해학교조합’과 ‘진해번영회’가 일본인 단체로서의 유지되며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드러낸 것과 비교할 때, ‘진해위생조합’이 일본인 사회의 자치적 성격보다 식민지 위생관리를 위한 행정적 성격을 가진 보조적 단체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처럼 조선인 지역을 관리구역에 포함한 것은 민족을 경계로 삼을 수 없는 위생관리의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결국 그 목적은 일본인 거주지 위생 보호와 유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총독부 하위조직 또는 그 보조적 단체로서의 특징과 동시에 ‘진해위생조합’ 구성원들은 진해 일본인 유력자 네트워크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진해위생조합’ 조합장과 부조합장은 시가지 경제 번영을 위한 단체였던 ‘진해번영회’ 부회장과 회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 또한 ‘진해번영회’와 ‘진해학교조합’에 소속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진해위생조합’ 역시 진해 일본인 유력자 네트워크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며, 결국 지역유력자가 총독부의 지방통치체계 속으로 흡수되어가는 과정 또는 그 유착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

일본 해군의 식민지 군항도시로 건설되었던 진해는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1910년 이후, 군사시설지를 관할하는 해군, 군사시설지를 제외한 진해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총독부, 중심지이자 일본인 사회로 이루어진 진해 시가지, 주변부의 조선인 사회가 함께 존재했다. 해군에서 총독부로 그 관할권이 넘어가는 등 행정주체가 복잡하였고 아직 총독부의 통치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던 1910년대 진해에서 위생을 목적으로 한 ‘진해위생회’는 진해 일본인 지역 유력단체 중 하나였다. ‘진해위생회’는 ‘진해위생조합’으로 개칭한 후, 콜레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지역뿐만이 아닌 조선인 지역까지를 포함한 위생관리를 위한 단체로 변화했다. 그 중심에는 일본인의 위생 보호와 유지 목적이 있었다. 이는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에서 나타난 전염병 문제에 대한 대응이 지역의 다양한 존재들을 아우르는 제국주의적 위생관리 조직의 출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군항도시 진해 시가지에서 나타난 위생관리 문제는 ‘진해위생조합’을 비롯하여 총독부 정책, 해군 정책, 상하수도 시설, 의료시설, 풍기관리, 전염병 대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식민지 군항도시 진해에 관

해 종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지역이었던 시가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조선인 지역과 군사시설지로 범위를 확장하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식민지기 테니스의 문화접변

-경식정구에서 연식정구로-

김동명(국민대)

1. 머리말
2. 경식정구의 동요
3. 연식정구의 전파와 수용
4. 연식정구에의 저항
5. 연식정구의 정착
6. 맺음말

1. 머리말

반도의 정구계는 자못 연구의 전성시기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 준경구와 경구가 일부에서 행하나 그것은 극히 부분적 소수이고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연구를 흔히 행한다. 그리고 종래 남자만이 행하던 모든 경기 중에 점차로 여자도 이 경기에 취미를 갖게 되어 지방에서는 전년까지 보지 못하던 여자정구대회가 평양 대구 함흥 등지에서 거행하게 됨은 요람시대를 넘은 감이 있다.¹⁾

이 글은 테니스를 사례로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 지배 하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문화접변과정을 분석하였다. 문화접변(acculturation)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 지속적인 직접 접촉을 행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집단의 원래의 문화 형태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²⁾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는 강제적인 접촉상황에서 행해지는 문화접변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당국의 강력한 정치적 압박에 의해 일어나는 식민지에서의 문화접변은 식민지민에게 전혀 이질적인 문화요소조차도 일단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강제적인 상황에서 행해진 문화변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논리에 따라 변용과정을 밟아간다.³⁾

잘 알려진 대로 일제는 근대문명을 전파한다는 지배 이념을 표방하며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일본인에게 조선인을 동화시킬 것을 지배 목표로 삼아 강제적인 문화접변을 시도했다. 그 결과 식민지 조선에서는 실제로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접변이 일어났는데 테니스도 그 중에 하나였다. 문호 개방 이후 조선에서는 당시 서구에서 유행했던 경식정구(硬式庭球,

1) 「요람시대를 넘은 평양 대구의 여자정구대회」, 『조선일보』, 1926년 1월 24일, 석간 2면.

2)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XXXVIII(1936), pp. 149-152. 보다 상세한 내용은 平野健一郎, 『國際文化論』 (장인성·김동명 역, 『국제문화론』, 풀빛, 2004년, 85-87쪽) 참조.

3)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83쪽, 110-111쪽; 이병원, 「식민지 시기의 음악적 문화변용: 총체적, 비판적 시각으로 본 견해」, 『동양음악』, Vol. 27,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5년, 16-17쪽; 최길성 편,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변용』, 상, 아세아문화사, 1992년, 52-53쪽 등 참조.

Lawn Tennis)가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자 일본에서만 행해지고 있었던 연식정구(軟式庭球, Soft Tennis)가 경식정구를 대체해갔던 것이다.⁴⁾

이 글은 이와 같은 식민지기 테니스의 문화접변을 『국제문화론』에서 히라노 겐이치로(平野健一郎)가 제시한 「문화접변의 과정」을 채용해서 분석한다. 그에 의하면 문화접변과정은 하나의 문화가 구평형(舊平衡) 상태에서 신평형(新平衡)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분적인 해체가 구평형에서 일어나면 외래문화요소의 전파·제시, 필터와 선택, 외래문화요소의 수용, 문화적 저항, 문화요소의 재해석, 문화의 재구성, 신평형 순으로 이어진다. 문화는 항상 움직이며 어딘가에서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전체로서는 대체로 안정 상태이며 계속성은 유지된다. 만약 지나치게 문화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한다는 문화의 의의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문화 내부에서 새로운 안정, 즉 평형상태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는 것이다.⁵⁾

지금까지 문화개방 이후 식민지기에 이르는 기간의 테니스의 전개에 관해서는 주로 체육학 분야에서 많은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 넓게는 근대 체육이나 스포츠, 좁게는 구기 종목 또는 테니스의 전파(도입), 수용(보급), 정착(발전)의 양상에 관한 귀중한 사실들을 발굴해서 축적해왔다.⁶⁾ 이들 연구는 비록 이 글처럼 히라노의 「문화접변의 과정」을 구사하여 분석하지 않았지만 테니스라는 문화요소가 변화를 계속해왔으며 그 변화는 식민지라는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접촉상황에서도 문화의 논리에 따라 일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종래의 연구로부터 힘입은 바 매우 크다. 다만 이 글은 식민지기에 일어난 문화변화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히 저항에 주목하고 나아가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테니스의 문화접변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문화접변의 과정」을 사용했다.

다음에 일반 역사학 분야에서도 마침내 식민지기 테니스를 포함한 스포츠에 관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조선의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김성(金誠)과 남궁영호(南宮吟皓)⁷⁾ 등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김성은 「제국 일본의 시점으로부터 조선 통치기술로서의 스포츠」를 「식민지 조선의 시점으로부터 조선민족의 내셔널리즘과 스포츠와의 관계」를 그려냄으로써 「스포츠를 매개로 한 쌍방의 생각과 식민지 사회에서의 스포츠의 실제」에 다가서려 했다. 이들 연구는 「문화접변의 과정」에서 테니스=스포츠라는 문화요소의 한계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권력관계」, 즉 식민지기 「지배와 저항과 협력」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스포츠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매우 시사적이다.

4) 한편 Tennis라는 용어는 1910년 전후의 시기에는 테니스와 이를 번역한 정구가 병용되다가 연식정구가 등장하면서 경식정구와 연식정구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이후 식민지기에 연식정구가 주로 행해지면서 테니스와 정구(주로 정구)는 일반적으로 연식정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의 테니스는 경식정구로 불리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당시의 상황에 충실하고 문화접변의 과정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 현재의 론 테니스와 소프트테니스를 경식정구와 연식정구로 각각 부르기로 한다.

5)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88-90쪽.

6) 장강일, 「한국정구 100년 ①-⑦」, 『모던테니스』, 모던테니스사, 1983년 10월호-1984년 4월호; 이학래, 『한국체육백년사』, 한국체육학회, 2000년; 김봉섭, 『한국 근대 스포츠의 전개 양상 -1880년~1940년 간 근대 스포츠의 도입·수용·확산』,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손환·하정희, 『구한말 근대스포츠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체육사학회, 2016년; 정건, 『한국 초기 테니스의 보급과 발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년; 박영준, 『광복 이전 동아일보사 주최 전조선여자정구대회에 관한 역사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년 등.

7) 金誠, 『近代日本・朝鮮とスポーツ 支配と抵抗, そして協力へ』, 東京, 塙書房, 2017年; 南宮吟皓, 『日本統治期朝鮮における新聞社主催朝鮮女子庭球大会(1921-1941)に関する研究』, 日本筑波大学人間総合科学研究科博士論文, 2007年.

한편, 식민지기 테니스의 문화접변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라켓, 공, 네트, 복장, 시설 등의 용구, 점수 콜과 서비스 방법 등의 경기 규칙, 심판과 개인·단체전 등의 경기운영 방식, 경기단체와 참여자의 인구, 계층, 지역 등의 실태 분석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필자의 능력과 자료, 지면 등의 한계상 주로 테니스를 행하는 인구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물론 당시 매우 제한된 인원이었지만 그들 사이에 일정 정도 확산(대중화)되는 시합 모습을 중심으로 접변과정 중 각 단계에 상응하는 특정 부문에 예로 들어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910년 공식적인 식민지 이전 시기도 일부 포함되었고, 조선, 조선인, 경성 등의 당시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했으며, 어려운 고어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알기 쉬운 현대어로 바꾸었음을 미리 알려둔다.

2. 경식정구의 동요

1876년 문호개방 이래 조선에 정착해오던 경식정구는 19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인이 대거 조선으로 이주하면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즉, 구평형을 이루었던 경식정구가 부분적인 해체를 개시한 것이다. 문화는 전체로서의 안정 상태, 즉 구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항상 움직이며 어딘가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부분적인 해체가 개시되면 구평형은 깨지기 시작한다. 문화의 어떤 부분에 존재하는 문화요소가 종전 방식 그대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문화의 부분적인 해체가 일어난다. 만약 부분적인 해체를 멈추게 하지 못하면 그 문화는 결국 해체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다.⁸⁾

1) 구평형 : 경식정구

잘 알려진 대로 경식정구는 중세 시대 프랑스의 「뽀(paume)」에서 유래되어 영국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구미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후 1873년에 영국의 윙필드(Walter Wingfield)에 의해 체계화되어 1877년 영국 Wimbleton(Wimbeldon)에서 「전영론테니스선수권대회(All England Lawn Tennis Championship)」가 개최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경식정구가 처음 조선에 전해진 것은 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김옥균(金玉均)과 조선에 건너온 외국의 외교관과 선교사 등에 의해서이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후 1882년 미국, 영국 등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잇달아 맺으면서 근대적 국제관계에 본격적으로 편입했다. 이에 국제법과 외교관행에 따라 외국공관이 설치되고 외국의 외교관을 비롯한 관료, 선교사, 상인 등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외국과의 관계가 점점 긴밀해졌다. 또한 조선 사회에서는 근대문명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져갔는데 체육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⁹⁾ 이러한 가운데 경식정구가 조선인 개화파와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외국공관과 외국인 구락부, 그리고 외국인이 세운 학교를 중심으로 정착해갔다.

우선, 1882년 김옥균은 일본에서 경식정구 용구를 가지고 귀국해 자택과 탁지부에 코트를 만들고 이듬해인 1883년부터 경식정구를 시작했다. 이어 1883년 조선 주재 미국공사로 부임

8)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90-91쪽.

9) 문호개방 이후 근대 체육의 도입에 관해서는, 이학래, 앞의 책, 25-80쪽 참조.

한 푸트(L. M. Foote)와 이듬해인 1884년에 조선 주재 영국총영사로 부임한 애스턴(W. G. Aston)이 각각 공관에 잔디코트를 만들고 경식정구를 하면서 그것을 조선에 소개하였다. 김옥균은 푸트와 애스턴 부부를 초대하여 경식정구 시합을 했으며 점차 일부 조선인 개화파 사이에도 경식정구가 퍼졌다. 또한 경성 주재 외교관들은 외국인 관리·선교사·상인 등과 사교 모임인 구락부를 결성하여 코트를 만들고 경식정구를 즐겼다.¹⁰⁾

다음에 서양 선교사들은 학교를 설립해서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체육 교육을 교육의 영역으로 인정하여 체조 등을 교과목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교과목 이외의 과외 활동으로 각종 운동경기를 장려했는데 경식정구도 그 중 하나였다. 예를 들면 1891년에 정신여학교에, 1900년에는 배재학당에서 경식경구부가 조직되어 경식경구가 행해졌다.¹¹⁾

이상과 같이 구평형은 1876년 문호개방 이래 대략 1900년 초반까지의 시기로 당시 경성에 거주하던 소수의 외국인과 조선인 개화파와 학생들이 외국공관과 구락부 및 학교에서 행하던 경식정구이다. 물론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매우 소수가 즐긴 경식정구가 조선에 정식으로 수용,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히 구평형으로 설정한 것은 이 글의 분석 대상인 식민지기의 연식정구로의 문화접변과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2) 부분적인 해체의 개시

경식정구가 더 이상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해체를 시작하게 된 요인으로는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연식정구를 선호한 것과 경식정구에 드는 고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외인에 의한 문화변화를 후자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직면한 문제를 각각 보여준다.

(1) 조선 이주 일본인의 증가와 연식정구 선호

경식정구는 일본에서 조선에 이주해 거주하는 일본인(이하 재조일본인)들이 증가하고 그들이 연식정구를 선호하면서 더 이상 평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이미 연식정구를 향유했던 일본인들은 조선에 이주해오자 경식정구 보다는 연식정구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미 몸에 익혀 즐기고 있었던 연식정구는 이주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체육활동이었다. 선수 경력의 재조일본인의 존재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05년 조선에 건너와 연식정구의 전파·제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무샤 렌조(武者鍊三)는 고등상업학교 재학시절 전국을 제패한 유명한 선수였으며¹²⁾, 조선은행에 근무하며 같은 은행 정구단을 이끈 호리(堀正一)는 도쿄(東京) 제국대학 선수 출신이었다.¹³⁾ 그리고 대구정구단에서 활동한 마쓰시타(松下直英) 판사는 대학시절에 「명수(名手)」로서 이름을 날렸으며 후지다(藤田)는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우승한 「강자」였다.¹⁴⁾

10) 장강일, 「한국정구 100년 ①」, 1983년 10월호, 75-76쪽; Olive R. Avison(황용수 역), 『구한말 40여년의 풍경』, 대구대학교 출판부, 361-362쪽; 장건, 앞의 논문, 8-20쪽.

11) 곽애영·곽형기, 「한국 개화기 기독교계 학교의 체육활동 연구」, 『체육사학회지』, 제16호, 2005년; 장건, 앞의 논문, 22-33쪽.

12) 大島勝太郎, 『朝鮮野球史』, 朝鮮野球史發行所, 1932年, 6, 123-124쪽; 武者鍊三, 「電氣瓦斯の今昔」 朝鮮及滿洲社, 『朝鮮及滿洲』, Vol. 293, 1932年, 66쪽.

13) 장강일, 「한국정구 100년 ②」, 1983년 11월호, 79쪽.

14) 『부산일보』, 1918년 4월 30일, 4면.

또한 일본에서 연식정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재조일본인 중에는 일본사회에서 유수의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한 연식정구를 조선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조선사회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지배 대상인 조선인과 함께 조선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였다.¹⁵⁾ 따라서 그들이 연식정구를 선호하자 거기에 일부 조선인들도 가세하면서 경식정구는 부분적인 해체를 시작했던 것이다.

일본에 경식정구가 처음 전래된 것은 1870년대 후반 요코하마(横浜)와 코베(神戸) 등에서 외국인들이 경식정구를 하면서이다. 이후 1886년 도쿄고등사범학교의 미국인 교사의 영향으로 경식정구부가 창설된 이래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경식정구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당시 경식정구는 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흥미를 끌지 못했고 특히 공을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싼 탓에 확산이 곤란했다. 이에 1890년 도쿄고등사범학교는 「미타쓰지 고무(三田土ゴム)」 회사에 위탁해 저렴한 고무공을 제조하게 했다. 서양의 경구가 고무공에 포(布) 또는 모전(毛氈, felt)을 씌워서 만든 딱딱한 공이었던 데 비해 이 공은 고무만으로 만든 말랑말랑한 연구로 가격과 기술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이후 이 공을 사용한 일본의 독자적인 연식정구가 개발되어 급속도로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⁶⁾

재조일본인은 1900년 전후 일본에서 조선이민론이 본격 대두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1900년 15,829명에서 1905년 42,460명, 1906년 83,315명, 1910년말에는 171,543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수적 증가와 함께 일본인의 조선에서의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1905년 제2차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의해 다음 해 일본정부는 통감부를 설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비롯해서 모든 내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동시에 지방 지배를 위해 부산, 마산, 목포, 군산 등 10곳과 이후 대구, 신의주 등 3곳에 이사청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사청 아래 거류민단을 조직했다. 또한 1907년 제3차한일협약(정미7조약)에 의해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서에 다수의 일본인을 파견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탁지부, 법부, 내부에서 일했다. 1909년 말 한성 거류민의 직업은 관리가 2,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점원 1,478명, 고용원 1,269명, 목수 961명, 회사원 739명 순이었다.¹⁷⁾

이와 같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재조일본인이 지역을 넓히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들과 조선인들과의 접촉이 증가하면 할수록 조선에서 연식정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에 따라 경식정구는 부분적인 해체를 개시하며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고비용과 기술적 어려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인들에게도 경식정구는 높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확산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조선에서도 공은 물론 라켓과 네트 등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쌌다. 또한 경식정구는 상대적으로 타구가 용이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보급되기도 힘들었다.¹⁸⁾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0년 정구부

15) 이규수, 「재조일본인 연구와 식민지수탈론」 『일본역사연구』, 제33집, 일본사학회, 2011년, 167쪽.

16) 「日本テニスの歴史」(일본테니스협회홈피, <https://www.jta-tennis.or.jp>); 立石隆司, 「テニス十五年略史」, 『文教の朝鮮』, Vol.- No.4, 朝鮮教育會, 1927년, 53쪽; 鈴木正, 「テニスの起源と発達について」 『一橋大学研究年報 自然科学研究』 13, 1971년, 32-36쪽 등 참조. 1910년대 1다스에 일본산 연식공이 1원 20전이었던 데 비해 외제 경식공은 무려 25원 정도로 20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장강일, 「한국정구 100년 ②」, 1983년 11월호, 79쪽).

17) 高崎宗治, 『殖民地朝鮮の日本人』, 이규수 역,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2006년, 56, 98-99쪽; 이규수, 앞의 논문, 168쪽.

가 조직된 배재학당에서는 네트 대신 새끼줄을 매고 정식 라켓 대신 널판 조각 라켓을 가지고 정구를 할 정도였다.¹⁹⁾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식정구를 하거나 그것을 지켜보던 조선인들이 재조일본인들이 갖고 들어온 연식정구의 필요성을 더 느끼면서 기존의 경식정구는 부분적인 해체를 일으키며 동요했다.

3. 연식정구의 전파와 수용

부분적인 해체가 일어나면 문화전체의 해체를 막기 위해 외인에 의해 문화변화가 진행되는 경우 외래문화요소의 전파·제시와 선택·수용이 이어진다. 어떤 문화요소가 기능 부전에 빠지면 그것을 새로운 문화요소로 바꾸기 위해 다른 문화로부터 전파된 외래문화요소가 제시된다. 전파·제시된 외래문화요소는 수용자측 문화에 있는 필요성과 적합성이라는 조건의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필요성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며 적합성은 전통이나 사람들의 선호 또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되거나 묵살된다. 외래문화요소가 필터를 통과해 선택되면 일단 수용된다.²⁰⁾

1) 외래문화요소의 전파 및 제시

급증한 재조일본인이 연식정구를 선호하고 고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식정구가 부분적인 해체를 시작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 외래문화요소로서 일본으로부터 연식정구가 전파·제시되었다. 그것은 주로 재조일본인들에 의해 회사, 학교, 관청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재조일본인 중 연식정구를 조선에 적극 전파·제시하는 데 「가장 선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무사였다. 그는 도쿄고등상업학교 재학 시절부터 전국을 제패하여 이름을 날렸는데 1905년 제일은행총지점의 직원으로 조선에 건너와 1908년부터 일한와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식정구를 조선에 알렸다.²¹⁾

다음에, 학교의 경우 1906년 일본거류민단이 부산에 세운 부산제1상업학교를 시작으로 1907년에 경성의 선린상업학교에 1909년에는 부산개성학교, 인천일어학교에도 연식정구부가 창립되었다.²²⁾ 이어 1910년에는 선린상업학교 직원과 관립한성고등학교 직원들이 연식정구시합을 했다.²³⁾

그리고 1909년 5월 탁지부 소속 관청 직원이 조직한 친목단체인 회동구락부 정구부가 대회를 처음 개최하고 이듬해 4월에도 춘계대회를 열었다.²⁴⁾ 또한 1911년 용산철도정구부의 추계대회가 열려 왜성(倭城)구락부, 조선은행, 영림창(營林廠), 동양척식회사, 제백삼십은행, 총독부

18) 林原憲貞, 「庭球界にこれだけは必要」, 『조선신문』, 1929년 1월 1일, 2면 참조.

19) 배재고등학교 편 『배재학당』, 1991년, 48쪽.(확인, 이학래, 271)

20)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92-97, 113-114쪽.

21) 大島勝太郎, 앞의 책, 6, 123-124쪽; 武者練三, 「電氣瓦斯の今昔」 朝鮮及滿洲社, 『朝鮮及滿洲』, Vol. 293, 1932년, 66쪽.

22) 장강일, 「한국정구 100년 ③」, 1983년 12월호, 84쪽. 학교명은 창립 당시의 것으로 필자가 수정함.

23) 『매일신보』, 1910년 10월 14일, 2면.

24) 『황성신문』, 1909년 5월 4일, 2면; 『大韓毎日申報(국한문)』, 1910년 4월 23일, 2면; 『大韓毎日申報(한글)』, 1910년 4월 23일, 3면.

중학교, 동양협회 등이 참가했다. 이어 조선은행 대 동양협회의 시합과 조선은행, 제일은행, 제백삼십은행의 연합군 대 동양협회의 시합이 열렸다.²⁵⁾

또한 1911년 11월에는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가 조선에서 최초로 우승기를 내건 「제1회 우승기쟁탈 정구대회」를 용산철도코트에서 주최했다. 우승기에는 초대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우승」 휘호가 새겨졌다. 일반 관중과 응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된 이 대회는 조선의 「스포츠사」와 「정구사상 특필대서할만한 일」로 연식정구가 「발흥」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⁶⁾ 이로써 부분적인 해체를 시작한 경식정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연식정구가 주로 재조일본인에 의해 외래문화요소로서 조선에 전파·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필터

연식정구가 조선에 전파·제시되자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발이 생겨났다. 하나는 문화의 적합성이란 측면에서 기존에 경식정구를 하던 사람들이 국제적인 경식정구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일본만의 연식정구를 배척하거나 경식정구를 하지 않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특히 조선인들이 일본인 중심의 일본식 연식정구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1910년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李承晩)은 당시 연식정구를 치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그것(연식정구, 필자)은 왜인들만이 치는 것인 즉 세계선진제국에서 성행되고 있는 경구를 쳐야만 한다.²⁷⁾

미국에서 이미 경식정구를 접하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의 이 발언은 당시 일본인 중심의 일본식 연식정구에 대한 거부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필요성으로 당시 조선에서 연식정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많은 조선인의 경우 연식정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앞의 경식정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식정구의 용구 역시 일본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비록 경식정구 보다는 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이었다. 이 때문에 특히 기존에 정구를 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이 새롭게 연식정구를 시작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3) 외래문화요소의 수용

전파·제시된 연식정구는 일부 조선인에 의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묵살에는 이르지 않았다. 대략 1910년대에 재조일본인 사이에 연식정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거기에 약간의 조선인이 가세하면서 경성을 비롯해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방에서 연식정구단체가 줄지어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식정구경기가 도처에서 열리고 상호 간의 교류 시합이 개최되었으며 그를 보기 위해 관중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는 연식정구가 조선에 외

25) 大島勝太郎. 앞의 책, 7쪽.

26) 「半島の運動界(三)」, 『朝鮮新聞』, 1924년 4월 21일, 1면; 大島勝太郎. 앞의 책, 7, 124쪽. 한편, 『朝鮮新聞』 기사는 1909년으로 오시마(大島)는 1911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후자가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오시마는 이후의 대회에 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7) 전계원, 「한국 테니스의 발전사 ②」, 『테니스저널』, 테니스저널사, 1976년 6월호, 63쪽에서 재인용.

래문화요소로서 일단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경성에서는 1912년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 강자였던 용산정구단에 대항하기 위해 분립되어 있던 팀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정구단인 「경성보이스」를 결성했다. 경성보이스는 회칙을 정해 자체적으로 월례회와 년 2회의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용산정구단과 교섭해 경성일보사 주최 우승기쟁탈전에 참여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경성의 정구계는 「미증유의 활약」을 보였는데, 조선은행, 철도, 왜성구락부, 동양협회, 일한와사회사, 고등보통학교, 미쓰코시오복점(三越吳服店), 메이지야(明治屋), 쓰지야(辻屋), 십팔(十八)은행, 제백삼십은행, 히노데(日ノ出)소학교, 사쿠라이(櫻井)소학교 등이 활발하게 활동했다.²⁸⁾

경성의 조선인들도 정구구락부 조직에 적극 나서 1912년에 황명원(黃明源), 연학년(延鶴年), 이세정(李世楨), 구종태(具宗泰), 정규창(丁奎昶) 등이 조선인 최초의 정구구락부인 「금강구락부」를 창립했으며, 1917년에는 구종태를 중심으로 「태양구락부」가 생겨났다.²⁹⁾

1911년 이후 경성일보사 주최 「우승기쟁탈 정구대회」가 계속되어 1915년에 열린 제7회 대회에는 총독부, 철도, 와사(瓦斯, 가스), 동척(東拓), 체신(遞信), 선은(鮮銀) 등 경성과 인천을 비롯해 그 외 지방에서 회사, 은행, 학교, 상점 등의 정구단이 2개조 4명씩 출전하여 승부를 다투었다. 대회 당일 「일요일이라 운동을 좋아하는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 관중이 몰려들어 운동장 주위를 「담을 쌓은 듯이 둘러서고 각 선수를 응원하는 단체의 응원소리가 극렬」했다.³⁰⁾

다음에 지방에서도 다음과 같이 각종 대회가 활발하게 열렸다. 1911년 대구에서는 우인구락부 주최로 「정구대회」가 열려 농공은행, 조선은행대구지점, 경상북도도청을 비롯해 지역의 유지들이 참가해서 성황을 이루었다.³¹⁾ 1914년 황해도 해주에서 『경성일보』 해주지국 통신원 구마이(熊井晴雄)와 구락부원들이 일본인과 조선인 24명을 초청해 흥백 양 조로 나누어 「정구대경기회」를 개최하였다.³²⁾ 같은 해 부산에서도 「부산정구대회」가 열려 상업학교 제1심상소학교, 철도단, 와전단, 세관단 등이 참가해 각 팀의 응원단과 일반 관중 「수 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³³⁾

1915년 대전에서 대전구락부 주최 「추계정구대회」가 열려 흥업, 학교, 철도, 금융 등의 팀에서 60여명이 참석했으며,³⁴⁾ 1916년 공주공립농업학교에서는 「정구경쟁회」가 개최되어 공주 관민과 같은 학교 직원 학생 및 졸업생 측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동서로 나누어 경쟁했다.³⁵⁾ 부산에서는 『부산일보』 주최 「제1회 부산정구대회」가 열려 지방법원, 은행단, 세관단, 고등여학교, 유지단, 우편국세관, 상업전문, 제1심상소학교, 제2심상소학교, 제5심상소학교, 철도단 등 20개 팀이 참가했다. 선수는 모두 일본인이고 학교교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수 백 명」의 관중이 코트 주위를 둘러싸고 「울타리」를 만들어 열광하며 응원했다.³⁶⁾

1917년에는 통영에서 상무회(尙務會)정구부가 「신춘정구대회」를 열었는데 다수의 조선인과

28) 大島勝太郎. 앞의 책, 8, 124쪽.

29) 波荷生, 「韓末前後의 朝鮮體育界」, 『동아일보』, 1929년 1월 3일, 석간 4면.

30) 『매일신보』, 1915년 10월 24일, 26일, 3면; 『경성일보』, 1915년 10월 25일, 석간 2면.

31) 大島勝太郎. 앞의 책, 7쪽.

32) 『매일신보』, 1914년 7월 7일 4면.

33) 『조선시보』, 1914년 11월 20일 5면.

34) 『부산일보』, 1915년 9월 7일, 1면.

35) 『매일신보』, 1916년 3월 16일, 4면.

36) 『부산일보』, 1916년 10월 21일, 5면, 10월 23일 3면, 10월 24일 7면, 10월 25일, 7면.

일본인이 함께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³⁷⁾ 부산에서 전년도에 이어 『부산일보』 주최 「제2회 부산정구대회」가 열려 소학교직원, 고등여학교직원, 상업고정구부, 부산세관, 실업단 등에서 22팀이 참가했다.³⁸⁾ 대구정구단에서는 관청측과 민간측이 2파로 나누어 「우승기의 보관쟁탈전」을 벌였다. 참가선수는 모두 일본인이며 관청측은 잠업강습소, 재판소, 도청, 고보림(高普林), 소학교 등에서 9팀, 민간측은 선은, 금융조합, 조면(縑綿)공장, 동척, 농은(農銀) 등에서 8팀이 참가하였다.³⁹⁾ 1918년에는 대구정구단이 「춘계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정구단 회장은 대구지방법원 판사 고미(五味逸平) 재판장이었으며 은행, 법원, 철도, 도청, 금융조합, 회사 등에서 참가했다.⁴⁰⁾

또한 일본 본국과의 교류와 조선 내 지방 간의 교류시합도 이루어졌다. 일본 야마구치(山口) 고등상업학교 정구선수단은 1911년부터 만주와 조선 각지에 수학여행 중 경성과 부산 등지에서 실업정구단과 고등학교정구단 등을 상대로 교류 시합을 가졌다.⁴¹⁾ 1914년 경성의 용산철도국정구단이 부산에 원정해서 부산정구단과 경기했으며,⁴²⁾ 1915년 이리에서는 대전, 군산, 목포, 이리, 전주, 논산의 「대연합호남정구대회」가 개최되었다.⁴³⁾ 1915~1917년에 대구에서 용산철도국정구단과 대구정구단이,⁴⁴⁾ 1916년에는 대구에서 대전정구단과 대구정구단이,⁴⁵⁾ 1917년에는 부산에서 대구정구단과 부산정구단이 각각 시합을 개최했으며,⁴⁶⁾ 목포정구단과 광주정구단은 매년 봄 여름 두 번에 걸쳐 정기 시합을 열었다.⁴⁷⁾

이상과 같이 경성을 비롯해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학교, 관료, 회사, 은행 등에 연식정구단이 창립되어 다양한 형태의 대회와 시합을 통해 연식정구가 행해졌다. 일본인을 중심으로 일부 조선인이 가세하는 가운데 일반인들도 관중으로 참여하면서 외래문화요소로서 연식정구가 조선에 일단 수용되었던 것이다.

4. 연식정구에의 저항

문화적 저항은 새로운 문화요소를 선택·수용한 후 얼마 안 있어 수용자측 문화가 외래의 이물(異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새로운 문화요소와 종래의 문화요소와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를 위해서는 수용자측 문화요소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쁜 부분은 당장 해체하고 싶지만 그 주변은 그대로 두고 싶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변의 문화요소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문화요소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⁸⁾ 새롭게 수용된 연식

37) 『매일신보』, 1917년 2월 2일, 4면.

38) 『부산일보』, 1917년 11월 16일, 4면, 11월 19일, 3면, 11월 20일, 4면.

39) 『조선시보』, 1917년 10월 14일, 3면.

40) 『부산일보』, 1918년 4월 30일, 4면.

41) 『부산일보』, 1916년 6월 1일, 5면; 大島勝太郎, 앞의 책, 7쪽.

42) 『조선시보』, 1914년 11월 25일, 5면; 大島勝太郎, 앞의 책, 31쪽.

43) 『부산일보』, 1915년 9월 13일, 19일, 1면.

44) 『부산일보』, 1916년 6월 10일 4면, 1917년 10월 3일, 5면.

45) 『부산일보』, 1916년 6월 10일 4면.

46) 『부산일보』, 1917년 4월 26일, 4월 28일, 7면, 4월 30일, 3면.

47) 『부산일보』, 1917년 9월 7일, 4면.

48)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124-126쪽.

정구에 대해 국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재조일본인 중심으로 행해진다는 것에 대한 반발, 그리고 고비용과 특권층만이 즐기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의 저항이 생겨났다.

1) 국제성의 부족에 대한 비판

연식정구는 주로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서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식정구에 비해 국제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일본이 이미 경식정구로 전환해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이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다.

일본에서는 1913년에 게이오의숙대학(慶應義塾大學)이 「연식으로는 국제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식정구로 전환한 이래 전국의 주요 학교가 속속 경식정구를 채용하면서 본격적인 경식정구시대가 열렸다. 1913년 연식정구에서 경식정구로 막 전향한 구마가이(熊谷一弥)가 경식정구 동양선수권에 출전해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며 이후 수차례 미국에 건너가 1919년에는 미국 랭킹 3위에 올랐다. 그는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에서는 단식에서 은메달을 복식에서도 카시오(柏尾誠一郎)와 함께 준우승하였는데 이는 일본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었다. 또한 1920년 시미즈(清水善造)는 일본인 최초로 워싱턴대회에 참가해 챌린지라운드에서 준우승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처음으로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에 구마가이, 시미즈, 카시오 등이 출전하고, 1926년과 1927년에도 시미즈, 하라다(原田武一), 토바(鳥羽貞三), 오오타(太田芳郎), 미키(三木龍喜) 등이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⁴⁹⁾

1912년 금강구락부 창설에 앞장서며 당시 조선인 연식정구를 리드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인 연학년과 야구에 관여하며 「운동계의 중진」이었던 박석윤(朴錫胤)은 다음과 같이 연식정구 중심에서 벗어나 경식정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올림픽을 제외하고 단일종목으로 세계적 우열을 다투는 운동경기는 정구뿐인 것 같다. 각국에 정구협회가 있어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일 년에 한번 씩 데이비스컵 쟁탈전이 있다. 그 나라의 건전한 정신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래에 있어서는 운동이 제일인 것 같다 ...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정구도 세계적 활무대에 활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려면 연구를 버리고 하드볼(경구)을 시작하여야만 한다. 일본서는 경구를 채용한 지 몇 해 아니 되어서 清水 熊谷 양 씨 같은 세계적 선수를 내고 신진으로 福田 原田 安部 鳥羽 太田과 같은 유명한 선수를 배출하였다 ... 우리가 정구를 조선내의 정구로만 하지 말고 세계적 정구를 만들려면 불가불 경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⁵⁰⁾

오늘날 세계인이 하는 정구와 일본인이 발명한 연구식 정구 ... 물론 조선 내에서만 하는 운동경기로서는 그것이 값싸게 들고 운동만 잘 되면 무엇이든지 관계가 없다. 그러나 모든 운동경기가 세계화하는 오늘날에는 급격히 세계적으로 진출은 못할지언정 세계적 진운에 보조를 맞춰나가려는 의사만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조선정구계의 일부는 경구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일본의 전문학교 이상이 전부 경구로 변한지 이미 오래요 세계적 선수로도 최근의 原田 太田 安部 등을 내기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까지 오히려 연구를 굳이 지켜 하루라도 이 대세의 진운에 뒤떨어지는 것을 나는 몹시 민망하게 생각한다.⁵¹⁾

두 사람은 국제정구계에서 경식정구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향후 조선이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본 특유의 연식정구에서 벗어나 경식정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49) 「日本テニスの歴史」(일본테니스협회홈피, <https://www.jta-tennis.or.jp>);鈴木正, 앞의 글, 55-58쪽.

50) 연학년, 「정구계의 片想 (其四)」, 『조선일보』, 1924년 1월 1일, 석간 13면.

51) 박석윤, 「世界와 運動 歐羅巴列國의 運動界印(15)」, 『동아일보』, 1928년 4월 4일자, 석간 2면.

은 이미 일본이 경식정구로 이행하여 단시간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사실을 들어 조선이 연식정구에만 몰두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며 크게 반발한 것이다. 연학년의 경우 조선이 연식정구만을 하기 때문에 국제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전 조선의 치욕」이라며 「새해」부터 당장 경식정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⁵²⁾

2) 일본인 중심에 대한 반발

연식정구가 재조일본인 위주로 수용되어 행해지고 있어 조선인의 연식정구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다. 이는 연식정구의 조직과 대회를 둘러싼 일본인과 조선인의 갈등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연식정구 조직을 위해 1918년 가을경 당시 경성에서 활동했던 15개의 정구단은 「경성정구회」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경기를 거행하는 데 절대적인 편의를 얻어 스포츠의 대중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기초」를 만들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회장에는 조선은행 총재 미노베(美濃部俊吉), 부회장에는 만철관리국장 구보(久保要藏), 미쓰이(三井)물산회사지점장 고노(高野省三)를 추천하고 경성의 「유력자」를 간부에 망라했다. 이어 다음 해인 1919년 2월 경성야구단과 합동해서 「조선체육협회」를 조직하였다.⁵³⁾ 이 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해 총 47명의 임원 중 평의원에 조선인 단 1명(한상룡, 韓相龍)만이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조일본인 중심의 단체였다.⁵⁴⁾ 실제로 같은 협회는 1922년 9월에 「전조선여학생정구대회」를 개최하고 협회 회원 16명을 심판으로 위촉했는데 모두 일본인이었다.⁵⁵⁾

이러한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에 맞서 조선인들은 1920년 7월 「조선체육회」를 창립했다. 이회는 「조선청년계에 크게 운동사상을 고취하고 일반체육의 장려를 실행할 목적」을 표방하고, 각종 경기대회의 개최와 체육에 관한 도서 발행 등의 사업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⁵⁶⁾ 이어 1923년 9월 구종태, 이세정, 김종원(金鍾遠), 윤호병(尹嘯炳), 연학년 등은 정구단체의 연합기관인 「조선정구협회」를 발기했다. 이 협회는 경기대회에 심판과 코치를 파견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조선의 정구계를 「적극 진흥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내걸었다.⁵⁷⁾

이후 조선정구협회는 1925년 5월 정식 창립하여 윤호병(전임간사), 구종태, 김종원, 안정원, 이세정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사업 계획을 확정했는데, 조선인남자개인전, 학생개인전, 여자개인전, 일반학생개인전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⁵⁸⁾ 이는 그 동안 일본인 중심의 단체들이 「내선인을 구별하여 참가 자격의 범위」를 좁게 정했기 때문에 조선인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심히」 적었던 데에 반발해 스스로 정구대회를 주최하기로 한 것이다.⁵⁹⁾ 지방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1925년 충남 대전의 조선인 유지들은 조선사람만으로 조직된 체육기관이 없음을 「많은 유감」으로 여기고 우선 정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체육회」를 창립했다.⁶⁰⁾

52) 연학년, 「내가하는 運動의 特色과 자랑(二)」, 『中外日報』, 1927년 1월 9일, 2면.

53) 大島勝太郎, 앞의 책, 126-127쪽.

54) 大島勝太郎, 앞의 책, 132-133쪽.

55) 『매일신보』, 1922년 9월 26일, 3면.

56) 『동아일보』, 1920년, 6월 18일, 28일, 7월 13일, 석간 3면; 『대한체육회 70년사』, 38-41쪽; 손환, 「조선체육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2008년, 2-3쪽.

57) 『매일신보』, 1923년 9월 21일, 3면; 『조선일보』, 1924년 9월 21일, 3면.

58) 『시대일보』, 1925년 5월 24일, 2면.

59) 『매일신보』, 1925년 6월 11일, 2면. 조선정구협회는 1925년 6월 「첫 사업」으로 개인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본인들의 참가를 적극 「환영」해 152개조 300여 선수가 참가하는 「운동계 공전의 성황」을 이루었다(『시대일보』, 1925년 6월 15일, 26일, 2면; 『동아일보』, 1925년 6월 11일, 13일, 석간 2면).

다음에 대회 운영에 관해서도 일본인 중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예를 들면 「전선중등학교정구대회」에서 2, 3회전 조 추첨 방법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조선인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했다. 그들은 주최 측이 「내선용화」를 무시하고 체육협회 몇몇의 전단(專斷)으로 「선수의 위신을 해쳤다」고 일본인 측을 강하게 비난하며 조선인 측은 앞으로 「결속해서 출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⁶¹⁾ 또한 충남 예산정구구락부가 개최한 「제4회 충남정구대회」에는 각 군으로부터 일본인 2개조와 조선인 43개조 총 45개조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아래와 같은 경기 운영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는 「통탄」하며 주최 측에 대하여 「엄정한 경고」를 전했다.

첫째로 정구대회 개최의 통지서와 신청서라는 것을 일본문으로 작성 발송한 것이며, 둘째로 대회 당일 개최사를 일본어로 발표하고 그 외 용어를 전부 일본어를 사용하였으며 우승기 수여식사와 폐회식을 또한 역시 일본어로 일관한 것이다. 그리고 소위 대표 선언자 모는 무의식적으로 맹중한 태도를 보일뿐이니⁶²⁾

기자는 이와 같이 조선인이 다수 참가하는 대회를 일본어로 진행하는 것은 조선인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는 기이한 일」이며 「크게 민족적 청년수양에 배신되고 어그러진 문제」라고 주장했다.

3) 비싼 비용과 소수 특권층 향유에 대한 불만

식민지기 연식정구를 비롯한 운동경기는 일반인이 몸에 익혀 그 효과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설비를 필요로 하므로 금전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결국은 일부 극소수에 한정된 운동이 되고 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운동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었다.⁶³⁾

연식정구의 경우 학교나 회사, 관청이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트가 거의 없어 일반인은 연식정구를 하고 싶어도 실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⁶⁴⁾ 아주 소수의 계층만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하였다. 이는 여자정구대회를 앞장서 개최한 『동아일보』가 선수들에게 전하는 당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여자로서 신체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면 또한 여자로서 그 용감한 자태를 만인의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조선여성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선여자정구대회에 대표를 보낼 수 있는 여자는 오직 각 지방에 있는 중등정도의 여학생뿐입니다. 그런데 조선 현재 상태를 보면 중등정도의 학교 수효는 불과 수 십 개요, 학생의 수효는 불과 수천 명입니다. 이와 같이 소수의 여자 외에는 운동 같은 것은 꿈에도 꾸어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산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학교며 운동은 고사하고 하루의 시간의 거의 전부를 노동에 빠져서 신체와 정신이 시들어질 대로 시들어집니다. 그들의 눈에는 운동하고 있는 여자들이 원수와 같이 밋게 보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여자의 처지를 돌아보고 소수 유복한 여자들의 정구대회를 설

60) 『동아일보』, 1925년 6월 5일, 석간 5면.

61) 『조선신문』, 1924년 7월 19일, 5면.

62) 『동아일보』, 1927년 9월 7일, 석간 4면.

63) 조선체육연구회주사 김보영(金保榮), 「우리의 급무는 체육민중화에 있다」 『조선체육계』, 제1권 제1호, 창간호, 1933년 7월 참조.

64) 『매일신보』, 1922년 8월 31일, 3면.

명하면 그곳에는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현상이 드러나서 사회의 결함이 증명됩니다.⁶⁵⁾

실제 여성정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제한된 극소수의 유한계층이므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무산계급의 사람들은 연식정구에서 심한 계급적 불평등을 느껴 그들을 「원수」처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여성에만 그치지 않고 남성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실제 식민지기 운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경성의 경우 재조일본인과 10%에 국한된 조선인 유한층에 불과했으며, 경성 외곽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최하층의 서민들로 연식정구와 같은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다.⁶⁶⁾ 학교의 경우도 정구를 비롯한 운동경기는 「전교 학생 중의 일부분 기호자의 전유물인 감이 있어」 10%만이 참여하고 나머지 90%는 「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현상」을 보였다.⁶⁷⁾ 따라서 비싼 비용을 들여 소수의 특권층만이 향유하는 연식정구에 대해 경식정구 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었다.

5. 연식정구의 정착

새로운 문화요소의 정착은 저항에 의해 외래문화요소와 그와 관련된 재래 문화요소와의 재해석이 일어나며 재구성되어 신평형에 이르는 것이다. 저항을 거친 외래 문화요소는 제공자측 문화 체계 속에서 갖고 있던 기능과 의미 때문에 선택되었지만 그대로는 수용자측 문화 체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그 의미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수용자측 문화도 새로운 문화요소가 도입됨에 따라 압력을 받아 주변의 문화요소가 변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수용자측 문화에 의한 거부반응인데 이 거부반응을 이겨내고 조직적으로 적합해야 서로에게 알맞은 재해석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때 문화 전체가 활력 가득한 문화로 소생한다. 즉 문화는 새로운 요소를 포함해서 재구성되고 새롭게 평형상태에 이르며 비로소 문화 전체의 해체 과정이 멈추는 것이다.⁶⁸⁾

1) 문화요소의 재해석

저항을 겪으면서 외래문화요소는 어느 정도 의미를 바꾸게 되며 수용자측 문화에서도 문화요소가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문화요소가 변하게 된다. 이로써 조직적으로 적합성이 높아지면 문화요소의 재해석이 일어난다. 전 조선규모 대회의 창설과 도쿄 유학생 정구단의 활동, 관제체육활동 조성과 주민참여, 비용 절약과 시설 확충, 청년단체의 정구대회는 바로 수용자측 주변의 문화요소가 변한 것으로 연식정구라는 문화요소가 재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전 조선 규모 대회의 창설

1921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전 조선 규모의 연식정구대회는 저항에서 나타난 일본인 중심과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전 조선 규모의 남성대

65) 「女子庭球大會 選手諸氏에게(二)」, 『동아일보』, 1927년 9월 29일, 석간 3면.

66) 김현숙,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야맹」,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9호, 2008년, 142쪽.

67) 『동아일보』, 1926년 10월 4일, 석간 1면.

68) 장인성·김동명 역, 앞의 책, 143-145, 151쪽.

회는 조선인만의 대회를 창설함으로써 그 동안 일본인 중심의 대회에서 탈피하려 했으며, 여성 대회는 일본인과 조선인 선수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역시 일본인 중심이라는 비판을 잠재웠다. 다음에 응원단 및 일반 관중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직접 연식정구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즐기는 것으로 소수만의 운동이라는 불만을 누그러트렸다.

1921년 10월 조선인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체육회는 기존에 일본인 중심으로 경성에서 열렸던 경성일보사 주최 「우승기쟁탈 정구대회」와 지방에서의 각종 대회와 차별화하여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조선인 선수만이 참가하는 「전조선제1회정구대회」를 개최했다. 조선인이 주최한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이 대회는 경성에서 3일 간에 걸쳐 열렸는데, 구락부측 9단체(불교청년회, 보전친목회, 개성엠티청년회, 원산청년회, 예산구락부, 시천교청년회, 전수학교정구부, 금산청년회, 금강단정구부)와 중등학교측 8단체(선린상업학교, 송도·보성·중앙·휘문양정고등보통학교, 정주오산·경신학교)가 참가했다. 「경성은 물론 남편으로는 전라북도의 금산과 북편으로는 평안북도의 정주에서까지 참가」하여 「전 조선의 청년이 한마당에 모여」 「승부를 다투는 실로 그전에 보지 못한 조선운동사상에 광채 있는 한 기록」이었다. 제2회 대회에는 관중이 「무려 사천여명에 달하였으며 응원과 박수 소리로 수송동 일대가 떠나가는 것 같」았다. 대회의 심판과 임원은 모두 조선인이었다.⁶⁹⁾ 이후 이 대회는 해가 갈수록 선수나 일반 관중에게 「운동정신」이 보급되어 선수의 정신이 「냉정」해지고 관중의 태도가 「정중」해져서 그들은 운동경기의 정신이 승벽(勝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전 선투함에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된 듯했다.⁷⁰⁾

이어 「여성의 정구열」이 왕성해지자 일본인 중심의 조선체육협회와 조선인 중심의 조선체육회가 경쟁적으로 전국 규모의 여성대회를 유치했다. 먼저 조선체육협회는 1921년 시범대회를 거쳐 1922년부터 정식으로 「전조선여학생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가 주최한 이 대회에는 일본인 학교인 경성제1·경성제2·인천·대전·원산고등여학교와 함께 진명·숙명·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등 조선인 여학교도 참가하였다.⁷¹⁾

이에 조선체육회도 1923년부터 동아일보사 주최 「전조선여자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경성에서 경성·숙명·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와 정신·배화·동덕여학교, 지방에서 공주영명여학교와 개성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등 조선인 학교 8개교와 경성제1고등여학교 등 일본인 학교 3개교 총 11개교가 참가했다. 시합 당일 「양 편 교문으로 뒤를 이어 들어오는 일반 부인 관중들은 금시에 이만명 이상에 달하여 한 군대의 경기로는 도저히 일반관중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어 이에 제2코트를 준비하여 싸움을 두 곳으로 나누어 시작하니 그 장관은 실로 비단 위에 꽃」이었다.⁷²⁾

이 외에도 1922년부터 「전조선중등학교정구대회」가, 1923년에는 「전선전문학교연합정구대회」가 개최되어 「정구에 열광한 수천의 관중은 더운 것을 잊고 코트의 전후좌우로 열 겹 스무 겹을 둘러서서 응원하는 대성황」이었다.⁷³⁾

69) 『동아일보』, 1921년 10월 15일, 석간 3면, 10월 16일, 석간 3면, 1923년 9월 27일, 석간 3면; 『매일신보』, 1922년 05월 21, 22일, 3면. 한편 이 대회는 이후 1937년 제17회대회까지 소학부, 중등부, 전문부, 청년부 등으로 나누어 매년 개최되었는데 전체 참가팀은 120팀이다. 이중 지역적으로 경성이 98팀(82%)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김봉섭, 앞의 논문, 105-114쪽 참조).

70) 일기자, 「전조선정구대회를 보고」, 『개벽』, 제41호, 개벽사, 1924년 11월호, 100-101쪽.

71) 『조선시보』, 1921년 10월 11일, 3면; 『매일신보』, 1922년 9월 22일, 23일, 26일, 3면.

72) 『동아일보』, 1923년 6월 14일, 22일, 28일, 석간 3면, 6월 30일, 석간 1면, 7월 2일, 석간 3면, 1924년 6월 21일, 석간 2면.

73) 『매일신보』, 1923년 5월 18일, 31일, 3면, 6월 11일, 3면.

[2] 도쿄 유학생 정구단의 활동

일본 도쿄에 유학중인 조선인 학생들이 조직한 「재도쿄조선인학우회(在東京朝鮮人學友會), 이하 유학생학우회」가 조선 각지에서 행한 연식정구 원정경기는 연식정구를 통해 근대문명 수용의 필요성을 조선인에게 알림으로써 일본인 중심의 연식정구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병합 직후인 1912년에 만들어진 유학생학우회는 「회원 상호의 친목과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표방하고 토론, 연설, 체육 장려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문서부, 재무부, 장예(掌禮)부, 지육부, 감사부, 체육부, 편집부 등을 두었다. 체육부는 축구부, 정구부, 육상부 등을 설치해 회원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체 운동회를 개최하고 일본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가했으며 조선에 원정경기단을 파견하여 순회시합을 개최했다.⁷⁴⁾

유학생학우회의 정구단은 하계방학을 이용해 7월에서 8월에 걸쳐 조선 각지를 돌며 원정경기를 벌였다. 1918년에 이어 1920년에는 조선체육회의 후원과 매일신보사의 원조로 경성과 평양 등에서 조선체육회, 조선은행팀, 왜성대구락부, 일본인 평양단, 송실단 등과 시합했다.⁷⁵⁾ 1922년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강경, 조치원, 천안, 예산, 경성, 인천, 개성, 평양, 진남포, 검이포, 정주, 선천, 신의주 등지에서 경기를 벌였다.⁷⁶⁾ 경성에서는 전경성정구단과 금강팀을 상대로 개성에서는 전개성팀, 평양에서는 전평양군 및 일본인측 전평양군과 시합했다. 개성의 경우 「아침부터 날이 흐려서 매우 우려하였으나 날이 흐리고 비가 오려함도 생각지 않고 모여드는 관중은 무려 수천을 이루었다」.⁷⁷⁾

유학생학우회의 정구원정경기는 1924년에도 부산, 대구, 광주, 목포, 경성 등지에서 각지의 대표단과 열렸는데⁷⁸⁾, 1925년에 조선인 유학생을 관리하는 기관이 「조선유학생독학부(督學部)」에서 「도쿄 조선총독부 출장소」로 바뀌면서 유학생들이 사용하던 「유일한 코트」가 폐지되어 정구단이 소멸했기 때문에 4년간 중단되었다. 이후 유학생수가 늘어나면서 1928년 유학생학우회가 다시 정구단을 「부활」해서 원정에 나섰다. 동아일보사와 조선정구협회가 후원한 이 행사는 조선운동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일반인들의 「기대와 환희」를 한층 고조시켰다. 정구단은 부산, 대구, 경성, 평양, 선천 등지에서 원정시합을 거행했다.⁷⁹⁾

이들 원정경기는 「경쟁을 주장함도 아니요. 소일을 위함도 아니요. 성벽을 도도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앞에 닥쳐오는 생활전(戰)과 처세술에 대한 단련을 목적함이요. 또는 이것을 기회삼아 정다운 고국의 동지들을 반갑게 만나고자 함」이었다.⁸⁰⁾ 이처럼 유학생학우회 정구단

74) 유학생학우회의 체육활동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손환,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의 스포츠 활동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 『체육사학회지』 제13호, 2004년; 정미량,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유학생의 체육활동에 관한 고찰: 재동경유학생학우회(1912.10-1931.2)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27집, 2008년 등 참조.

75) 『毎日申報』, 1918년 7월 26일, 3면, 1920년 7월 25일, 3면, 7월 26일, 3면, 7월 28일, 3면, 7월 30일, 3면, 8월 06일, 3면.

76) 『동아일보』, 1922년 7월 15일, 석간 4면; 『매일신보』, 1922년 7월 22일, 3면, 23일, 4면.

77) 『毎日申報』, 1922년 7월 22일, 3면, 7월 23일, 4면; 『동아일보』, 1922년 7월 29일, 석간 3면, 8월 2일, 석간 4면.

78) 『동아일보』, 1924년 7월 4일, 20일, 석간 3면; 『조선일보』, 1924년 6월 20일, 석간 3면; 『시대일보』, 1924년 6월 19일, 1면; 『매일신보』, 1924년 7월 21일, 3면.

79) 『동아일보』, 1928년 2월 18일, 석간 2면, 7월 7일, 석간 5면, 7월 14일, 석간 5면, 7월 16일, 석간 2면, 7월 19일, 석간 7면.

80) 『시대일보』, 1924년 6월 19일, 1면.

의 원정경기는 유학생들이 연식정구를 매개로 조선인들과 교류함으로써 당시 사회생활에서 근대적인 체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몽했다. 그 결과 조선에서 연식정구가 일본인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조선인의 반발을 악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유학생학우회 정구단에서 활동했던 연학년 등이 귀국 후 조선정구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3] 관제체육활동조성과 주민 참여

일제는 지배의 안정을 위해 조선 주민의 정치적 요구를 압살한 대신에 관제문화를 조성해 순응시키려 했다. 개인의 삶을 안정시킨다는 정치선전은 비록 실제와 일치할 수 없었지만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위험과 불안정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에 일제가 적극적으로는 「취미」·「쾌락」·「여가」·「오락」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천하고 강요하자 주민들은 거기에 반응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정된 생활 기반을 축적하면서 저마다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의의를 확대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⁸¹⁾ 연식정구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연식정구를 「대중화, 보편화, 민중화」함으로써 「단지 스포츠라는 관점」을 넘어서 「내선인의 이해, 융화를 진척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나아가 일반 대중에 대해서 내지 또는 조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서 내선일체의 관념을 복돋는 효과」를 기대했다.⁸²⁾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과 「시정기념일」을 맞아 정구대회를 개최하거나 정구대회에 총독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격려하는 것 등은 바로 일제의 관제정책과 그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1920년 함경남도 북청군 유지들이 만든 청해정구구락부는 천장절을 맞아 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넓은 운동장에 관중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대성황」이었다.⁸³⁾ 다음해인 1921년 체신국에서도 역시 천장절을 맞아 정구대회를 열었는데 참가 인원이 100여명이었다.⁸⁴⁾ 매일신보사 대전지국 은 매년 「우승기쟁탈 남선정구대회」를 천장절에 즈음하여 대전정구협회 후원 하에 개최되었다.⁸⁵⁾ 또한 1921년 강원도청은 「시정기념일」을 맞이하여 도청군과 전춘천군으로 나누어 정구시합을 개최하였는데 관중이 2백여 명에 달하는 대성황이었다.⁸⁶⁾

그리고 1921년부터 매년 열린 「전조선여학생정구대회」에는 총독부 학무국장 부인이 참석하여 시구했으며⁸⁷⁾, 1923년 제3회 같은 대회에는 관중이 구름처럼 모여 운동장 전후좌우를 송곳 세울 틈도 없이 둘러선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는데, 내빈으로 총독 사이토(齋藤實)를 위시하여 경무국장 마루야마(丸山) 부부, 국장 아오키(青木戒三)부인 등 관민의 유력한 부인들과 경기도지사 도키자네(時實秋穂), 전북도지사 이스미 (玄角仲藏), 황해도지사 이이오(飯尾藤次郎) 등이 참석하였다. 이 때 총독 사이토는 「미소를 띠며」 장시간 참관했다.⁸⁸⁾

8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권보드래, 「1910년대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 -『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보』에 나타난 대중」 『민족문화사연구』(36), 민족문화사학회, 2008년, 149-150, 158쪽; 김현숙, 앞의 논문, 140-143쪽; 김영미, 「식민지기 ‘오락 부재(不在)’ 담론의 양상」 『사회와 역사』, 112권, 한국사회사학회, 2016년, 258-271쪽 참조.

82) 大島勝太郎, 앞의 책, 12쪽 참조.

83) 『毎日申報』, 1920년 11월 10일, 4면.

84) 『毎日申報』, 1921년 8월 31일, 3면.

85) 『毎日申報』, 1926년 8월 11일, 2면.

86) 『毎日申報』, 1921년 10월 12일, 4면.

87) 『毎日申報』, 1922년 10월 3일, 3면; 『조선시보』, 1923년 10월 17일, 3면, 1924년, 10월 2일, 25면.

88) 『毎日申報』, 1923년 10월 19일, 3면.

(4) 목판정구와 유지 후원

연식정구에 드는 비싼 비용과 설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목판정구가 도입되고 지역의 유지들이 후원하였다. 우선 목판정구는 당시 라켓 가격이 고가였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은 7, 8세 때부터 목판을 라켓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주걱 같은 목판에 라켓 모양의 구멍을 뚫어 [중]심으로 공을 친」 것이다. 특히 목판정구는 「조금만 넓은 뜰」만 있으면 연습이 가능해서 어린아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었다. 당시 목판정구를 하는 소년들은 「일평생소원」이 「나도 어서 바빠 정말 라켓을 잡아 보았으면」하는 것이었다. 평안북도 선천(宣川)에서는 아이들끼리 추렴해서 우승기를 만들고 목판정구대회를 일 년에 여러 번 열었으며,⁸⁹⁾ 평안북도 용천(龍川)에서도 1924년부터 소년정구단 주최로 매달 「평북목판정구대회」가 열렸으며 「용천소년목판대회」도 개최되었다.⁹⁰⁾ 또한 1928년 강원도 횡성에서는 횡성소년회 주최로 「목판정구경기」가 「대성황」을 이루는 등 소년들의 목판정구가 여러 지역에서도 널리 행해졌다.⁹¹⁾

특히 소년들의 목판정구가 성행했던 곳은 선천이다. 선천은 목판정구 효과로 연식정구계에 이름을 날렸으며 우수한 선수를 다수 배출하였다. 목판정구대회에서 닦은 「세련된 기술과 담력」으로 선천은 중앙무대인 조선체육회의 「소학정구대회」에서 중학생을 능가할 호기(好技)를 보였고 압도적 우세로 3년 연속 우승하였다. 이들이 중학교, 전문학교를 거쳐 성장하여 「조선의 우이(牛耳)」를 잡고 나아가 「전일본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⁹²⁾

다음에 유지들의 도움이다. 평안북도 철산군의 동일학원(東一學院)은 경비가 부족해 연식정구에 필요한 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타까워한 의천북교회장으로 노정관(魯正瓚)이 연식정구 용구 일체를 기부하였다.⁹³⁾ 황해도 안악군에서는 기독교청년회와 연우구락부가 읍내 기독교회관 옆에 연식정구코트를 만들려고 노력하던 중 읍내 유지인 김용진(金庸震)과 강명선(姜明善)의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코트에 필요한 토지 361평과 170평을 각각 기부하였다.⁹⁴⁾ 완도군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가 부족해서 스포츠맨들이 될 만한 운동장이 없었는데 이를 「항상 유감으로 생각」한 삼세(三世)의원원장 김석홍(金錫洪)이 1,500원에 상당하는 땅을 완도체육회에 기부하여 연식정구 코트를 갖춘 운동장을 만들었다.⁹⁵⁾

(5) 청년단체의 정구대회

주지하는 바와 같이 3·1운동의 충격을 받은 총독부는 그 동안 금지했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활동을 제한적이지만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청년·종교·산업·사교 단체 등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청년단체들은 대체로 지·덕·체·육의 강화를 표방했는데 그 중에서 체육활동은 야구, 축구, 정구 등의 운동단체와 각종 운동회를 통해 이루어졌다.⁹⁶⁾ 1920년 이후

89) 波荷生, 「庭球選手產地 宣川大會를 보고(二)」, 『동아일보』, 1928년 7월 30일, 석간 4면.

90) 『조선일보』, 1924년 9월 13일, 24일, 석간 4면.

91) 『동아일보』, 1928년 8월 26일, 석간 4면.

92) 「宣川庭球十年史【上】」, 『동아일보』, 1935년 7월 11일, 조간 2면. 당시 널리 알려진 선천 출신의 대표적인 선수로는 장원진(張元珍), 이홍정(李弘正), 김안식(金安息), 이하영(李夏榮), 김치순(金致淳), 김필웅(金弼應), 정인진(鄭仁珍), 노병익(魯炳翼) 등이다. 이 중 노병익은 1934년 「전일본전문교선수권」에서 우승했다.

93) 『동아일보』, 1925년 4월 28일, 석간 3면.

94) 『동아일보』, 1928년 4월 10일, 석간 4면.

95) 『동아일보』, 1933년 12월 16일, 조간 5면.

신문지상에 보도된 청년회가 참여했다고 생각되는 연식정구시합은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여기서는 1920년대 초반 명확하게 청년회 주최로 열리고 있는 대회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대회는 연식정구에 대한 여러 저항들을 완화시켜 연식정구가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1920년 8월 전남 광주청년회구락부와 순천청년회구락부가 연합하여 「광순연합정구회」를 광주에서 개최하였는데 관중은 전후좌우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⁹⁷⁾

1921년 안성청년회는 수원청년회와 연합하여 안성에서 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청년수양회는 여름방학에 귀향 중인 제주유학생단과 지방청년단을 초청하여 정구와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관중이 「약 천명 이상」에 달하였다. 대구청년회는 대구에서 삼남 각지의 청년회와 일반 정구팀이 참가하는 「남선(南鮮)정구대회」를 주최하였으며, 충북 옥천청년회와 보은청년단은 보은에서 정구시합을 했는데 관중이 「천여 명에 달해 인산인해를 이루어 대성황」이었다. 이어 옥천청년회는 대전정구부와 영동정구부를 초청하여 「수천의 관중이 응원 중」에 「옥천정구전」을 벌였다. 연기청년회정구단 「30명 일행」은 대전에 원정해 대전청년회정구단과 시합했다.⁹⁸⁾

1922년 전남 광주에서 열린 목포청년회체육부군과 광주청년회체육부군의 시합은 「관람자가 인산인해의 성황을 이루었는데 박수갈채 소리는 무등산이 깨지는 듯 일대장관을 이루었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 성송청년회가 「남선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함평청년회, 영광청년회, 고부청년회, 고창고보학생, 옥천라이온팀, 성송청년회 등 7팀이 참가했다.⁹⁹⁾

1923년 전남 화순청년회가 주최한 「전남정구대회가」에는 광주, 이양, 남평, 화순, 복내 등지에서 12팀이 참가하였는데 「운집한 군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함북 북청청년회는 각 회와 공사립 각 학교 및 학술강습소 등이 참가하는 「전북청소년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년에 이어 성송청년회 주최 「제2회 남선정구대회」가 개최되었다.¹⁰⁰⁾

1924년 천안청년회 주최 「제5회 경남(京南)정구대회」가 열렸으며, 충남 강경청년간친회원과 공주청년수양회원이 강경에서 정구시합을 개최하였는데 「관중은 무려 수천에 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경북 의성청년회는 군위청년회와 의성에서 정구경기를 「성황」리에 가졌고, 안동청년회는 안동구락부, 예안학생단, 의성정구단, 의성청년회, 봉화청년회 등 6개 단체가 참가한 「경북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릉청년회와 김천청년회는 김천에서 개최한 「남선정구대회」에는 대구, 상주, 여수, 김천 등에서 선수들이 참가했다.¹⁰¹⁾

2) 문화의 재구성 및 신평형

재해석된 문화요소는 재구성되어 신평형을 이루면 해체 과정이 중단된다. 문호개방 이래 1900년 초반까지 경성을 중심으로 소수의 외국인과 일부 조선인 개화파와 학생들이 외국공관과 구락부 및 학교에서 행하던 경식정구는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다수의 재조일본인과 조

96) 김승, 「한말 일제하 김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역사문화학회, 2014년; 김재영, 「1920년대 김해지역의 청년운동」, 『전북사학』, 제34호, 전북사학회, 2009년; 성주현, 「일제강점기 진위청년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교육』 vol. 28, 역사와 교육학회, 2019년; 최성환, 「1920년대 목포청년운동과 지역엘리트의 성격에 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1), 인문학연구소, 2016년 등 참조.

97) 『매일신보』, 1920년 8월 31일, 4면.

98)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 4면, 8월 9일, 12일, 14일, 31일, 4면, 9월 6일, 3면, 14일, 4면.

99) 『매일신보』, 1922년 9월 16일, 20일, 28일, 3면.

100) 『매일신보』, 1923년 8월 29일, 9월 6일, 11월 9일, 4면.

101) 『시대일보』, 1924년 5월 4일, 6월 7일, 8월 8일, 25일, 9월 24일, 4면.

선인이 경성은 물론 지방 각지의 직장과 학교, 지역 등에서 즐기며 다양한 형태의 시합이 열리고 대규모의 관중이 운집하는 연식정구로 정착하였다.¹⁰²⁾

학교의 경우 정신, 양정, 동덕, 진명, 보성 등 대부분의 고등보통학교에서 연식정구를 적극 장려했으며¹⁰³⁾ 선린상업학교는 매년 학생들의 춘계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자는 132명 66개 조에 달했다.¹⁰⁴⁾ 이화학당에서는 매년 「학급대항정구대회」가 열렸다.¹⁰⁵⁾ 대전고등여학교는 1922년에 연식정구부가 생기고 이듬해 4개의 코트를 신설하여 전교생에게 연식정구를 권장하였다. 이후 라켓소지자가 전교생 2백 30명 중 2백여명에 달하였으며 연중행사로 봄가을 두 번의 교내정구대회를 개최하였다.¹⁰⁶⁾

1925년 9월에 조선인이 주도하는 조선정구협회가 주최하고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가 후원한 「제1회 전조선연식정구선수권대회」는 전 조선 규모의 개인정구대회로서 조선인 단체가 주최하고 일본인이 함께 참가하는 「처음」있는 일이었다.¹⁰⁷⁾ 이는 종래 주로 일본인 단체가 주도하는 소규모의 단체전에서 조선인단체가 주도하는 전 조선 규모의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연식정구가 새로운 평형을 이루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제1회 전조선연식정구선수권대회」는 전 조선 규모에 걸맞게 예선전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경성에서 본선을 거행했다. 6개 구역 및 장소는 경기도 일원(경성), 충청남북도(청주), 경상남북도(대구), 전라남북도(이리), 강원함경남북도(원산), 황해평안남북도(평양)이었고 예선 일시는 경기도 일원이 8월 30일과 31일, 나머지 구역은 모두 8월 23일이었다.¹⁰⁸⁾

경기도 일원의 「중앙예선」에 참가한 선수들의 추첨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¹⁰⁹⁾ 우선 A조 43팀과 B조 42팀, 총 85팀이 참가하였다. 선수가 미정인 2팀을 제외하면 총 83팀 166명이다, 이 중 조선인팀이 41팀이며 일본인팀은 35팀이고 혼성팀은 7팀으로 조선인이 89명이고 일본인은 77명이다. 다음에 지역은 경성을 비롯해 인천, 개성 등이다. 경성대표로 6팀, 인천대표로 18팀, 개성이 3팀이다. 나머지는 모두 경성인근의 팀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소속이 명기되어 있어 이들에 한해 분류해보면 크게 일반구락부(金剛, 和星, 太陽, 櫻, 스탠다드, 아가시아, 三坂, 甲子, 遊藝), 은행(鮮銀, 商銀 高銀), 관청(倭, 鐵道, 京郵, 遞信), 학교(京高, 大豫, 法專, 養正, 京師), 회사(韓日, 實業)로 구분할 수 있다.¹¹⁰⁾

102) 1925년의 경우 정구·축구·야구·육상경기·빙상경기·농구·배구 등 각종 운동대회가 열렸는데 이 중 전조선대회가 경성에서 17회, 지방에서 17회, 총 34회였으며, 지방대회는 200여회 열렸다. 그 중에서 정구대회가 가장 많았고 축구·야구 등이 뒤를 이었으며 농구·배구 등은 매우 적었다(『朝鮮의運動界 (六)』, 『동아일보』, 1926년 1월 6일, 석간 2면).

103)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석간 17면.

104) 『조선신문』, 1924년 5월 18일, 3면.

105) 『매일신보』, 1926년 5월 31일, 3면.

106) 『조선신문』, 1928년 3월 13일, 3면.

107) 『동아일보』, 1925년 6월 13일, 석간 2면; 『조선신문』, 1925년 8월 5일, 3면.

108) 『시대일보』, 1925년 7월 12일, 2면.

109) 『시대일보』, 1925년 8월 30일, 3면.

110) 각 소속은 필자 개인이 구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료가 없어 약간 다를 수 있다. 한편, 왜(倭)는 왜성대(倭城臺) 즉, 총독부를 말하며 대예(大豫)는 경성제국대학 예과이다. 이후 이 대회는 조선정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성장하여 1930년에는 8월에 제5회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예선은 7개 구역으로 거행되었다. 예선 지역 및 참가팀 수는 경기 32개조, 충청 23개조, 경상 32개조, 서선 26개조, 평북 24개조, 북선 28개조, 전라 26개조 등 총 190여개조가 참가했다(『동아일보』, 1930년 1월 4일, 석간 7면).

표 1925년 제1회 연식정구선수권대회 중앙예선 추첨 결과

연번	A조		B조	
	소속	선수이름	소속	선수이름
1	韓日	金容喆, 金成雲	鐵道 1	伴, 八川
2		高木, 川口	鐵道 2	劉泳鎬, 丁奎昱
3	仁川	朴龍鳳, 韓萬億	아가시아	伊野田, 武藤
4		張起洙, 張起亨	大豫	麻生, 楠井
5		孔錫根, 盧潤熙	鮮銀	安, 浦岡
6		未定, 金明桓,	開城	孫興元, 全興淳
7	實業	南宮煜, 千鍾禧	三坂	池田, 寺師
8	鮮銀	尾崎, 堀江	仁川	松村, 岡本
9	實業	李德龍, 高應淳	大豫	姜, 全
10	養正	李春, 劉南	甲子	李時潤, 崔興男
11	倭	藤田, 牧野	太陽	李南求, 李揆元
12	鮮銀	村上, 原口	開城	孫昌成, 韓鎮泳
13	京師	細田, 裴		具, 市川
14	京城	吳, 津田	仁川	原, 深堀
15	京高	中川, 古賀	太陽	申哲均, 千鍾福
16	金剛	張元珍, 丁奎昶	法專	未定, 朴斗昊
17		中村, 高山	仁川	林, 朴
18	鮮銀	鍵谷, 橫田	京郵	笹川, 美島
19		張丁胤, 李漢柱	遊藝	朴昌均, 李炳祐
20	京城	小谷, 竹路	京城	崔, 矢野
21	京高	矢野, 永井	實業	李乙孫, 廉忠燮
22	金剛	崔學洙, 吳命煥	和星	金珣熙, 宋基宇
23	仁川	大前, 山田	大豫	姜聲(郇), 松山
24	和星	申東浣, 李慶煥	遞信	金珖熙, 兒玉
25		梁柱華, 徐丙理	仁川	徐載勳, 崔相準
26		李芳憲, 金準祥	高銀	本田, 尾崎
27	櫻	伊藤, 岩永	太陽	沈曦燮, 池晟濬
28	京城	金永植, 李承鶴	仁川	高橋, 野村
29		任直準, 吳星煥	金剛	金弼應, 南宮壕
30	京高	重藤, 芦澤		李甲承, 劉恩烈
31	法專	李鍾喆, 沈潤重		山田, 福島
32	商銀	高本, 西村	鮮銀	北山, 丸山
33	和星	李昌仁, 李壽玉	和星	朴鍾華, 池成龍
34	仁川	兒島, 久保	仁川	二神, 日下部
35	和星	金泰淳, 鄭珉奎	金剛	金致淳, 朴彼得
36	法專	三井, 北島	仁川	金鍾五, 羅承壽
37	仁川	守屋, 大林	京高	浦田, 吉村
38	京高	高田, 浦本	金剛	金奇俊, 趙澤元
39	仁川	本村, 井上	大豫	鄭, 裴
40		李相基, 金相準	京高	池田, 堀
41	京城	村田, 根岸	仁川	藤山, 山崎
42	스탄다도	林昌福, 韓麒鎬	鮮銀	丸山, 佐藤
43	仁川	李箕平, 申泰億		

출처: 『시대일보』, 1925년 8월 30일, 3면.

논문 모두의 인용문에 나타난 대로 1925년경에 이르러 테니스는 「자못 연구의 전성시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종래 남자와 경성 중심에서 여자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어갔으며 많은 관중들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한 것이다. 이는 1925년 6월 경성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최 「제3회 전조선여자정구대회」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사 주최 본대회의 날을 손꼽아 고대하던 만도의 인사들은 여자를 비롯하여 그 밖에 남자들도 오전부터 정동(貞洞)으로 정동으로 하도 물밀듯 모여들어 오후 한 시 경기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는 참가 각 학교의 응원단체들을 비롯하여 수 만여 명의 군중이 대회장 내외에 사람의 산과 바다를 이루었고 더욱이 맞은편 성벽 위와 그 밖의 운동장 둘레로는 완전히 사람의 성벽을 쌓았으며 또한 서편코트 경기장의 전후좌우로는 열 겹 스무 겹으로 철통같이 사람의 성을 쌓아 첫여름 한낮 빛의 더운 것도 잊어버리고 손에 땀을 쥐고 연속 굳은 침을 삼키어가며 정신없이 경쾌한 선수들의 일거일동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¹¹¹⁾

관중들의 연식정구에 대한 열기는 지방에서도 뜨거웠다. 1925년 대구에서 대구운동협회가 주최한 「전선정구대회」는 달성공원 아래 운동협회코트에서 4일간 계속되었는데 매일 관중이 「대만원을 이루었으며 때때로 산악이 무너지는 듯한 박수소리와 화포소리에 달성공원이 진동하여 떠나가는 듯」 하였다.¹¹²⁾ 같은 해 경북 봉화군 내성기독교청년면려회 주최로 봉화청년회 코트에서 열린 「봉화10단체정구대회」에는 춘양기독교청년회, 봉양강습회, 대성학원, 경성유학생, 내성면려청년회 영주기독교청년면려회 등이 참여했는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운집하는 관중은 무려 수천으로 박수갈채의 고성엔 천공에 달할 듯」하였다.¹¹³⁾ 앞에서 언급한 「제1회 전조선연식정구선수권대회」의 황해평안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예선에도 「수천 명의 관중」이 운집했고, 전라남북도 예선은 「각지 응원단의 열광적인 응원소리와 근 천 관중의 환호갈채」 속에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¹¹⁴⁾

한편, 경식정구는 경성에 거주하는 서양인을 중심으로 행해져 테일러가 기증한 우승컵쟁탈전으로 「재조선양인경구대회」가 개최되었다.¹¹⁵⁾ 또한 경성철도정구단에서 경식정구를 시작한 이래¹¹⁶⁾ 1927년에는 『오사카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 경성지국 주최 「제1회 경식정구선수권대회」가 열려 단식 28명과 복식 13개조가 참가했다.¹¹⁷⁾ 그리고 세브란스의전, 경성제국대학 등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구동호회가 생기면서 조금씩 보급되어¹¹⁸⁾ 1928년에는 「조선경구사상에 충동을 주게 된 세브란스 직원 대 재경서양인 경식정구전」이 열렸다.¹¹⁹⁾ 이어 1930년에는 「국제적」 경식정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세브란스병원의 오한영(吳漢泳)、체신국의 강성태(姜聲邵) 등 세브란스의전과 경성제대 출신 경구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서울경구구락부』를 조직했다.¹²⁰⁾ 그리고 1932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제1회 경식정구선수권대회」를 개최되는 등 명맥을 유지했다.¹²¹⁾

111) 『동아일보』, 1925년 6월 7일, 석간 02면.

112) 『시대일보』, 1925년 7월 29일, 3면.

113) 『매일신보』, 1925년 8월 4일, 3면.

114) 『시대일보』, 1925년 8월 25일, 3면.

115) 『동아일보』, 1928년 5월 31일, 6월 9일, 석간 2면.

116) 「운동계(5)」, 『경성일보』, 1924년 4월 24일, 7면.

117) 『조선신문』, 1927년 9월 21일, 5면.

118) 『동아일보』, 1928년 9월 25일, 석간 5면, 10월 15일, 석간 3면.

119) 『동아일보』, 1928년 10월 15일, 석간 3면.

120) 『동아일보』, 1930년 9월 11일, 석간 7면.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 지배 하 식민지 조선에서 테니스의 문화접변은 경식정구에서 연식정구로 바뀌었는데 구체적인 접변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평형인 경식정구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1900년 초반까지의 시기에 주로 경성에 거주하던 소수의 외국인과 조선인 개화파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외국공관과 구락부 및 학교에서 행해졌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늘어난 재조일본인들이 연식정구를 선호하고 경식정구에 필요한 고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식정구는 부분적인 해체를 시작하며 동요했다.

다음에 경식정구의 부분적인 해체를 막기 위해 외래문화요소로서 일본으로부터 연식정구가 재조일본인들에 의해 회사, 학교, 관청 등을 통해 전파·제시되었다. 전파·제시된 연식정구는 1910년대에 재조일본인과 약간의 조선인이 경성과 지방에서 단체를 조직하고 다양한 대회와 시합을 개최하자 거기에 관중들이 호응하면서 외래문화요소로서 일단 수용되었다.

이어 새롭게 수용된 연식정구에 대해 국제적 스포츠로 자리한 경식정구에 비해 국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재조일본인 위주로 행해져서 조선인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반발, 고비용과 특권층만이 향유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의 저항이 생겨났다.

저항을 겪으면서 수용자측 문화 주변의 문화요소가 변화했다. 전 조선규모 대회의 창설과 도쿄 유학생 정구단의 활동, 관제체육활동 조성과 주민참여, 비용 절약과 시설 확충, 청년단체의 정구대회는 바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수용자측 문화 주변의 문화요소가 변화해 연식정구라는 새로운 문화요소와의 조직적 적합성을 높여 재해석된 것이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연식정구는 다수의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이 경성과 지방을 불문하고 직장과 학교, 지역 등에서 행하며 많은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경기를 펼치는 활기찬 스포츠문화로 재구성되어 신평형을 이루며 정착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 테니스의 문화접변은 일제의 지배라는 강제적인 접촉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 국제적으로는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널리 행해지던 경식정구가 아닌 연식정구가 조선에 정착하였다. 이는 바로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식민지 조선에서의 문화접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고 강제적인 문화접변에 의해 정착한 문화요소는 조선에서 제국주의 지배라는 정치적인 상황이 사라지면 다시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방 후 한국에서 한국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테니스의 문화접변이 새롭게 진행되고 그 방향은 연식정구에서 경식정구로의 변화라는 것은 충분히 예기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1. 2021년 월례발표회 일정

- ▶ 제193회 월례발표회 : 5월 8일(3분 발표 예정)
- ▶ 제194회 월례발표회 : 6월 12일(3분 발표 예정)
- ▶ 제195회 월례발표회 : 9월 11일
- ▶ 제196회 월례발표회 : 10월 2일(10월 9일이 한글날인 관계로 한주 앞서 개최 예정)
- ▶ 제197회 월례발표회 : 11월 13일
- ▶ 제198회 월례발표회 : 12월 11일

5월과 6월에는 각 3분 선생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9~12월) 발표를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총무이사 이승민(crinoid@dg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신회비>

-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 일반회원 : 3만원
- 기관회원 : 4만원
-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297602-00-002428 <예금주> 이승민

3. 《한일관계사연구》 투고 안내

- 《한일관계사연구》는 매년 2·5·8·11월 네 차례에 걸쳐 발간되고 있습니다. 투고기한은 발간 2달 전까지입니다. (예) 5월 발간지의 경우 투고 마감일은 3월 31일.
- 논문 투고할 때 심사비 6만원을 입금해 주십시오.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연구비수혜논문인 경우 게재비 30만원, 일반논문인 경우 게재비 10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 홈페이지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횟수를 늘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